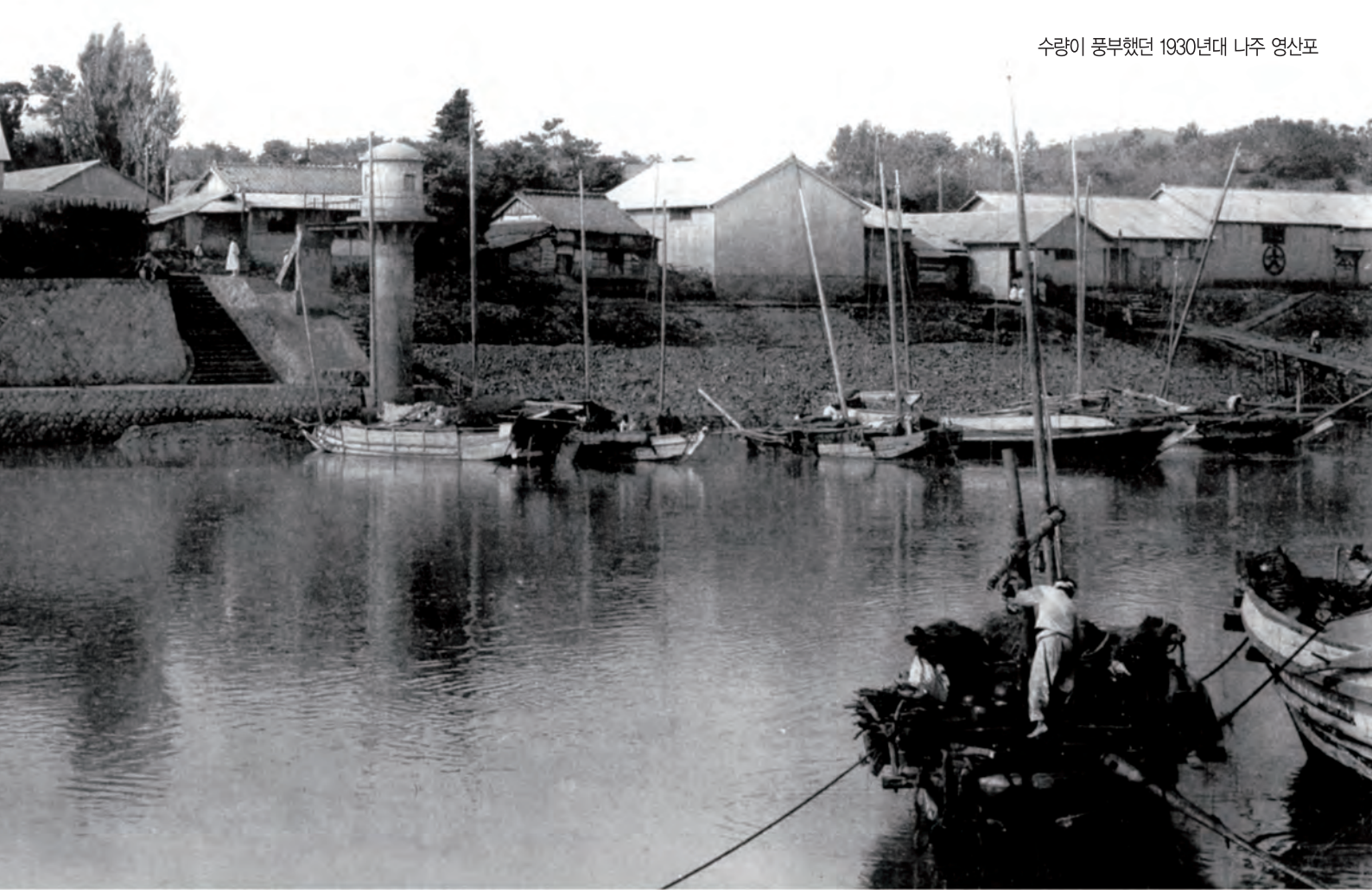
Weekly 공감
2010.10.20 No.81
gonggam.korea.kr
G20 SEOUL SUMMIT 2010
'꿈과 스피드의 만남' p21~43
F1 코리아 그랑프리
르포 준공 1개월 맞은 낙동강 부산 화명지구 p44~47
신재생에너지·물산업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 p14~15
공정한 사회, 2010 나눔경영 기업 탐방 p48~51

수량이 풍부했던 1930년대 나주 영산포

4대강살리기는 강의 원래 모습을 되찾아 주는 것입니다

4대강살리기 사업으로 제 모습을 찾기 시작한 금강세종시 구간

강에 퇴적토가 쌓이지 않았던 1930년대만 해도
내륙 깊숙이 배가 왕래할 정도로 수량이 풍부했습니다
4대강살리기는 퇴적토를 청소하여 우리 강을 치료하고
풍부한 수량을 확보하여 생명과 희망이 돌아오게 하는
우리강 제 모습 찾기입니다

강을 치료합니다
강바닥에 쌓인 퇴적토를 걷어내어
홍수와 가뭄으로 신음하던
강을 치료하게 됩니다

생명과 희망을 돌아오게 합니다
넉넉해진 강물로 인해 조류와 물고기등
주변 생태계가 풍요로워집니다

환경을 생각합니다
주변환경과 자연을 생각해서
환경을 보호하는 친환경 공법을
사용합니다

스포츠 그 이상의 스포츠 'F1'

2010 포뮬러원(F1) 코리아 그랑프리가 눈앞에 다가왔다. 코리아 그랑프리의 무대가 될 전남 영암의 경주장을 두고 걱정이 많았다. 하지만 대회를 유치한 전남도와 대회 운영법인 코리아오토밸리오퍼레이션(KAVO)은 뚝심 있게 대회 준비를 해왔고, 영암의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이 10월 12일 국제자동차연맹(FIA)의 최종 검수를 통과함으로써 10월 22~24일 2010 F1 코리아 그랑프리가 열리게 됐다.

흔히 F1을 경제 규모가 큰 스포츠 이벤트로만 기억하기 쉽다. 하지만 스포츠를 둘러싼 경제 규모만으로 F1의 가치를 따질 수는 없다. 특히 대한민국 사상 첫 대회인 2010 코리아 그랑프리는 11월에 열릴 서울 G20 정상회의와 함께 국격(國格)을 상승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60년 역사를 지닌 F1은 현재 아프리카를 제외한 모든 대륙에서 경기를 치르고 있다. F1은 전 세계 1백80여 개국의 2백여 방송사가 대회를 중계하고 6억명 이상이 지켜볼 정도로 인기가 높다. 평균 60만~80만원인 고가의 입장권을 구매해 경기장을 직접 찾는 관중 수만도 한 해 4백만명에 이른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 결과에 따르면 F1 경주장 건설에 따른 전남지역의 생산 유발효과는 4천2백억원, 고용 유발효과는 2천여 명에 달한다. 단순한 수치만이 아니다. 성공적으로 F1을 정착시킨 말레이시아는 지난 4월 F1 대회 기간 동안 1억5천만 달러의 관광수익을 거뒀다. 이 같은 효과는 F1이 관광 낙후지역인 전남과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이뿐만이 아니다. 모터스포츠의 꽃이라 할 수 있는 F1의 국내 상륙을 통해 모터스포츠의 질적, 양적 발전도 이뤄질 전망이다.

또한 모터스포츠의 발전은 자동차 기술의 발달로 귀결되는 만큼 우리나라가 자동차 강국으로 발돋움할 기회가 될 것이다. 국내 최초로 탄생한 그레이드 A급 레이싱 서킷은 국내 모터스포츠 팀과 드라이버 양성의 산실이 될 것으로 믿는다.

올해 시작되는 F1 코리아 그랑프리는 이 땅에 새로운 스포츠문화와 자동차문화를 꽃피울 좋은 기회다. 이미 올림픽과 월드컵 개최를 통해 세계적인 스포츠 강국으로 거듭난 대한민국이 한층 세련된 단계로 진화할 계기를 만나게 된 것이다. 대한민국 스포츠문화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순간이 기대된다. G

정영조
코리아오토밸리
오퍼레이션(KAVO) 회장

Weekly
2010.10.20
No.81(통권 182호)

Contents

표 지 이 야 기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스포츠' 대회로 꼽히는
포뮬러원(F1) 대회가 국내 최초로
열리는 전남 영암에서
10월 22~24일 화려한 레이스를
펼칠 F1 머신들.

http://gonggam.korea.kr

발행일 2010.10.20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인 유인촌
제작협력 동아E&D
인쇄제본 삼화인쇄(주)
문의 02-3704-9668
정기구독 02-2625-3294

알림 이 책을 펼치면 오른쪽
윗부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변환 바코드가 인쇄돼 있습니다.

**이 잡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정책을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는 주간지입니다.**

기획특집

1988 올림픽, 2002 월드컵 그리고 2010 F1

지축을 울리는 굉음과 함께 트랙을 질주하는
화려한 레이싱카들의 향연,
포뮬러원(F1) 월드챔피언십 2010 코리아 그랑프리가
10월 22일부터 사흘간 전남 영암에서 개최된다.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스포츠' 대회로 꼽히는 F1은
연간 4백만명의 관중을 불러모으고 6억명의 시청자가
지켜보는 세계 모터스포츠의 최고봉이다.
첨단 자동차 기술의 진면목을 보여줄
선진국형 레저스포츠인 F1은 영암지역을 동북아
관광허브로 이끌고 대한민국을
선진 스포츠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게 할 것이다.

Weekly 공감 편집실(gonggam@korea.kr)과
홈페이지(gonggam.korea.kr),
대한민국 정책포털 공감 코리아(www.korea.kr),
정책공감(blog.daum.net/hellopolicy),
청와대(www.president.go.kr) 등에
올라온 독자의 편지와 댓글입니다.

〈Weekly 공감〉 80호(10월 13일자) 기획특집 '서울 G20 정상회의 D-30'과 관련해 많은 독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내용을 소개합니다.

"G20 정상회의 개최 자랑스러워요!"

"대한민국의 위상을 세계에 알릴 서울 G20 정상회의 개최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지난 1년간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 궁금한 점이 많았는데, 벌써 현장에서 미디어룸을 만들기 위해 애쓰는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잘되리라는 확신이 듭니다. 곧 열릴 G20 정상회의가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국민의 지지와 응원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_이소민

"서울 G20 정상회의는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하게 선진국 반열에 올랐음을 대외만방에 과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모쪼록 예부터 소문난 동방예의지국의 면모와 내실을 이번 행사에서도 유감없이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이번 정상회의가 세계 각국 정상들이 이구동성으로 찬사를 하는 성공적인 회의, 월드컵 못지않은 전 국민의 축제로 승화되기를 바랍니다."_홍경석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 거두길…"

"세계 정상급 회의를 개최한다는 자긍심도 있지만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홍보효과를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양에 치중해 자칫 내실을 기하지 못하고 비용만 축내는 행사가 돼서는 안 되리라 봅니다. 기존에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은 되도록이면 재활용하고, 꼭 필요한 부분만 새로 설비해 저비용 고효율의 성과를 거뒀으면 합니다."_김규연

80호 '화제의 인물 / 5백억대 재산 기부한 아름다운 배우 신영균' 기사를 읽고 독자들이 보내온 의견입니다.

"기부문화가 아직 자리 잡지 못한 우리나라에서 모처럼 기부의 진수를 보는 것 같아 반갑기 그지없었습니다. 이젠 부유층이 솔선해 부를 세습하는 관습을 지양하고 사회에 환원하는 풍토를 만들어나갔으면 합니다. 그래야 부유층에 대한 거부감이나 그릇된 시각이 바뀌지 않을까요. 신영균 씨의 사례처럼 아름다운 기부 물결이 계속 이어져 좀 더 따뜻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_kim07999

"인생을 흔히 '공수래공수거(空手來空手去)'라는 말에 비유합니다. 그러나 이를 실제로 실천하는 이는 드물지요. 이런 맥락으로만 보더라도 '참 아름다운 배우' 신영균 님의 5백억원대 재산 기부는 진정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모범 사례입니다. 문화예술계 발전을 위해 큰 재산을 선뜻 내놓은 신영균 님의 이번 선행이 기부 열풍을 불러일으키는 들불이 되기를 기대합니다."_casj007

G20, 검소·실용적 '친환경 회의'로

"우수한 영화계 인재 발굴에 발판 되고파"

알립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 알려주세요

전화나 메신저, e메일 등을 이용해 주민등록번호나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같은 개인정보를 빼내 이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신종 사기수법이 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국민들의 피해 사례를 찾는다.

공모 내용 | 이벤트, e메일, 지인 사칭 등의 방법으로 겪은 금융사기 피해 경험 및 극복 노하우
응모 방법 | 공모전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와 관련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홈페이지나 e메일(phishing@boannews.com)로 제출
접수 기간 | 11월 5일까지
수상자 발표 | 11월 16일 홈페이지 게재 예정
시상 내용 | 최우수상(1명), 우수상(1명), 장려상(5명) 수상자에게 상장 및 상금 수여 예정

행정안전부 전화&메신저 수기 공모전 담당
☎ 02-719-6931 isecconference.org/contest

용산공원 스토리텔링 공모전에 참여하세요

용산공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이끌기 위해 '용산공원 스토리텔링 공모전'이 열린다.

공모 내용 | 용산공원과 관련한 역사, 문화유산, 인물, 자연, 설화 등의 소재를 활용한 이야기 창작물
공모 분야 | 소설, 영화, 드라마, 만화, 웹툰, 플래시 애니메이션 등
참가 대상 | 국민 누구나
접수 기간 및 방법 | 10월 31일까지 용산공원 홈페이지에 참가 신청을 하고 11월 1일부터 10일까지 우편이나 방문을 통해 작품 제출. 마감일 오후 6시 도착분에 한하며, 토·일요일에는 방문 접수하지 않음
접수처 | 서울 서초구 반포동 520-3번지 서울지방조달청 5층 국토해양부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 '용산공원 스토리텔링 공모전' 담당자
수상자 발표 | 11월 24일 홈페이지 게재 예정

국토해양부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 ☎ 02-3483-6528 park.go.kr

공감 퍼즐

		1			
2		3	4		
5	6		7		
	8	9			
	10				

빈칸의 답을 주소, 연락처와 함께 10월 27일까지
jjsmall@korea.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아이폰 〈정책투데이〉 앱에서도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가 로

3. 뛰어감. "오 상병은 OO하다가 쓰러진 이 일병을 일으켜 세웠다."
5. 외워서 잊지 아니함. "영어 단어를 OO하다."
7. 2011년 대구세계OO선수권 대회.
8. 농업, 공업, 발전용 등의 자원이 되는 물. "OOO이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이다."
10. 찾아오는 사람이 많아 집 문 앞이 시장을 이루다시피 함을 이르는 말.

세 로

1. 가을은 이 운동경기의 시즌이죠. 프로OO 준플레이오프, 플레이오프, 한국시리즈가 열리기 때문이죠.
2. '꿈과 스피드의 만남' 2010 F1 코리안 그랑프리 대회가 열리는 곳. 월출산, 아리랑, 왕인박사 유적지….
4. 부모나 보호자가 없는 아이들을 받아들여 기르고 가르치는 곳.
6. 경마 등에서 말을 타는 사람이죠.
9. 자신의 일생을 쓴 전기. 스스로 쓰기도 하고, 간혹 다른 사람에게 구술하여 쓰게 하기도 하죠.

〈Weekly 공감〉 79호(10월 6일자) '공감 퍼즐' 정답

가로 **1** 주유발 **3** 군침 **5** 사공 **7** 대들보 **9** 기회
세로 **1** 주례사 **2** 발군 **4** 침대 **6** 공정 **8** 들배지기

〈Weekly 공감〉 79호 '공감 퍼즐' 당첨자

박미해·부산 북구 구포1동
배선자·대구 수성구 매호동
신재임·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안철희·전남 장흥군 장흥읍 원도리
임영석·경기 부천시 소사구 범박동

"소외계층 위한 '한 상궁' 되어드릴게요"

금융감독원과 인연을 맺게 된 건 드라마 〈대장금〉 덕분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금융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맡은 금융감독원이 〈대장금〉의 '한 상궁'처럼 성실하고 친근하게 사회의 따뜻한 이웃이 되고자 노력하는 데 동참하는 것 또한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에서였지요.

그동안 금융감독원 홍보대사로 활동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청소년 금융교육' 행사에서 명예교사로 활동한 일도 생각나고, 금융감독원 직원들과 사람 냄새 나는 현장을 찾아다니며 사회봉사활동을 벌인 일도 기억에 남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보람을 느끼는 때는 금융감독원이 금융소외계층에게 다가가 희망의 씨앗을 건네며 행복 재테크에 나서도록 돕고, 또 그 노력들이 크고 작은 열매를 맺는 것을 지켜볼 때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인천에서 소규모 이삿짐센터를 운영하는 A씨는 사업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햇살론'을 통해 중고 사다리차를 구입하고, 아이들을 위한 주거 공간도 마련했습니다. 그 덕에 그가 사업 확장을 꿈꿀 수 있게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 마음에도 행복한 햇살이 비쳐드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을 교육시키며 생계를 꾸려가기에도 벅찬 고령의 아파트 경비원 B씨는 설상가상으로 아들 병원비까지 마련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처했다가 '희망홀씨대출' 덕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고 삶에 대한 새로운 희망도 품게 됐다고 합니다.

또 아내와 자녀의 신장 투석과 혈관 이식 비용을 대느라 살길이 막막하던 생선장수 C씨도 은행 대출이 어려운 금융소외계층이라 급전이 필요해도 발만 동동 굴렀는데 '미소금융'을 통해 지원금을 받고 새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금융감독원은 우리 이웃들이 썩은 동아줄이라도 붙잡고 싶은 난관에 빠졌을 때 그 곁에서 손을 내밀며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깊은 일에 미력이나마 힘을 보탤 수 있다면 언제든 기꺼이 동참하겠습니다. 저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하루하루 깊은 한숨을 내쉬는 우리 이웃들이 절망 대신 밝은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돕는 희망의 디딤돌이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일러스트 · 문지혜

글 · 양미경(금융감독원 홍보대사)

1. 가장 관심 있게 읽은 기사와 그 이유
2. 지난주 기획특집에 대한 의견
3. 〈Weekly 공감〉에서 다뤘으면 하는 내용

박현정 대구 달성군 화원읍

1. 'G20, 검소·실용적 친환경 회의로'라는 기사에 관심이 갔습니다. 녹색성장의 선두주자답게 우리나라가 탄소배출 최소화, 에너지 절감 등을 통해 친환경 회의를 추구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합니다.

2. 지금부터 1백여 년 전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온갖 수모를 겪었던 우리나라가 어느새 세계 이슈를 주도하는 나라로 성장했습니다. 서울 G20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한 달 앞으로 다가온 G20 정상회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위상과 놀라운 발전상이 세계에 널리 알려지기를 기대합니다.

3. 북한의 권력세습에 대한 언론보도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 권력세습의 문제점과 전망에 대한 심층분석 기사를 실어주세요.

홍서영 경남 양산시 소주동

1. 이번에 아름다운 기부를 하신 원로 영화배우 신영균 씨의 기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각자 자신이 가진 재산과 재능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베푸는 나눔문화가 널리 퍼져나간다면 우리 사회도 훨씬 살기 좋은, 살맛 나는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2. 이제 곧 서울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데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올림픽과 월드컵을 멋지게 치러낸 것처럼 우리 국민 모두가 이번 G20 정상회의가 안전하고 훌륭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한마음으로 응원하고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3. 겨울이 오기 전에 집안 대청소하는 법, 난방비 절약하는 법 등을 소개해주세요.

독 자 의 견

〈Weekly 공감〉은 독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의견은 〈Weekly 공감〉 제작에 소중하게 반영하겠습니다. 아래의 설문에 의견을 적어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10월 20일(수)까지 gonggam@korea.kr로 보내주십시오. 의견이 게재된 분에게는 3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1. 이번 주에 실린 기사 중 가장 관심 있게 읽은 기사와 그 이유를 적어주십시오.
2. 이번 주 기획특집으로 다룬 '2010 F1 코리아 그랑프리'에 대한 의견을 적어주십시오.
3. 〈Weekly 공감〉에서 다뤘으면 하는 내용을 적어주십시오.

www.ktv.go.kr

KTV에는 다(多) 있다!

생활 정책정보, 교양, 문화 콘텐츠까지~

KTV 한국정책방송은

여러분께 힘이 되는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희망채널이 되겠습니다.

• KTV정책대담

• 다시보는 대한뉴스

• 정보와이드

• 파란만장 취업 연구소

• 특선다큐

• 휴먼토크 내마음의 고백

• 인문학 열전

• 파워특강

• 영상포엠 한국 100경

• 공연초대석

• KTV시네마

KTV는 케이블, 위성(520번), IPTV(myLGTV:105 / 브로드앤TV:502 / 쿡TV:405) 및 인터넷(www.ktv.go.kr)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4대강 사업, 배추값 상승·수도요금과 무관

인천공항 일부 지분 매각으로 경영 선진화·2011년 '3대 복지예산' 증가

최근 일부 언론에서 4대강살리기 사업 때문에 배추값 파동이 오고 수도요금도 인상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으나 4대강살리기 사업은 채소 가격 상승이나 수도요금과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인천국제공항의 일부 지분 매각이나 2011년 복지예산에 관해서도 사실과 다르게 비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습니다'를 통해 잘못 알려진 정부 정책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자.

동아DB

최근 배추 파동은 강원도 고랭지 배추 출하량의 급감이 원인이다.

채소값 급등 | 재배면적 전체의 1.4퍼센트 감소

❶ 채소 가격 급등은 여름철 반복 폭염·잦은 강우 탓
❷ 배추·무 출하되는 곳은 4대강 유역과 무관

최근의 채소값 급등과 관련해 일부에서 "4대강살리기 사업으로 재배면적 자체가 줄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4대강살리기 사업으로 줄어든 채소 재배면적은 전체 채소 재배지의 1.4퍼센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채소 가격이 급등한 근본적인 이유가 여름철 반복된 폭염과 잦은 강우 등에 따라 작황이 부진한 데 따른 것으로 4대강살리기 사업의 영향은 미미하다고 밝혔다.

4대강살리기 사업이 시작되기 전 4대강변 하천 둔치의 채소 재배면적(2009년 7월 기준)은 3천6백62헥타르로 전체 채소 재배면적 26만2천9백95헥타르의 1.4퍼센트에 불과하다.

특히 배추나 무의 경우 출하되는 곳이 4대강 유역과 전혀 상관없는 강원 정선군, 태백시 등 고랭지 출하 물량이다. 한때 시중 소매가격이 포기당 1만원대까지 올랐던 배추의 경우 여름철 이상고온으로 병들거나 상품성이 떨어져 올 생산량(15만1천 톤)이 예년(25만 톤)에 비해 40퍼센트 정도 줄어 '금(金)치' 파동을 낳은 것이다.

수도요금 | 저평가된 물값 현실화 필요

❶ 수도요금 산정은 4대강 사업과 무관
❷ 수도요금 인상은 물 남용 막기 위한 최소한의 대책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4대강살리기 사업이 수도요금 인상 요인이 되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최근 보도와 관련해 "4대강살리기 사업은 하천사업으로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수도사업과는 전혀 별개"라고 밝혔다.

K-water에 따르면 수도요금은 정부의 공공요금 산정지침(기획재정부 소관)에 따라 '수돗물 공급을 위해 사용된 비용(상수관로 설치 및 정수비용 등)만을 회수'토록 돼 있어 4대강살리기 사업에 투자된 하천정비 비용은 수도요금에 포함될 수 없다. 수도요금의 구성 내용은 지난 6월 30일부터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어 4대강살리기 사업비가 물값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상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 '물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서 물 남용을 부추긴다는 지적은 이전부터 있어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지난 8월 31일 발표한 '시장 중심적 먹는 물 관리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을 포함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먹는 물 남용을 막기 위해 수도요금을 인상하는 추세"라고 주장했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의 수도요금(1세제곱미터당 0.77달러)은 덴마크의 11.5퍼센트 수준에 불과하며 2000~2007년 수도요금 변화 폭도 2.79퍼센트로 벨기에의 5.37퍼센트에 비해 낮다.

이 때문에 한국의 수도요금은 생산 비용보다 낮게 설정돼

있으며 이로 말미암아 한국 대부분의 수도사업은 적자이고 부족한 비용은 수도요금이 아닌 일반 세금 등으로 보전하거나 차입을 통해 충당하는 상황이다.

강희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수돗물 사용량을 10퍼센트 절약하면 국가 전체적으로 연간 4천3백18억3천2백만원의 편익을 얻을 수 있다. 물 절약 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사용량이 많은 곳일수록 요금을 높게 책정하는 차별적 요금체계 적용을 고려해야 한다"며 "저소득층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인천공항 | '일부 지분 매각'으로 경영 업그레이드

❶ 공항의 지분 매각은 세계적 추세
❷ 지분 매각은 인천공항 허브화·지속성장 위한 것

최근 사실관계가 잘못 알려진 또 다른 사례가 인천국제공항 선진화다. 이는 인천공항 허브화 및 인천공항의 지속 성장을 위해 인천공항공사의 일부 지분을 매각하는 것으로, 민영화(지분의 51퍼센트 이상 양도)나 '외국에 파는 것'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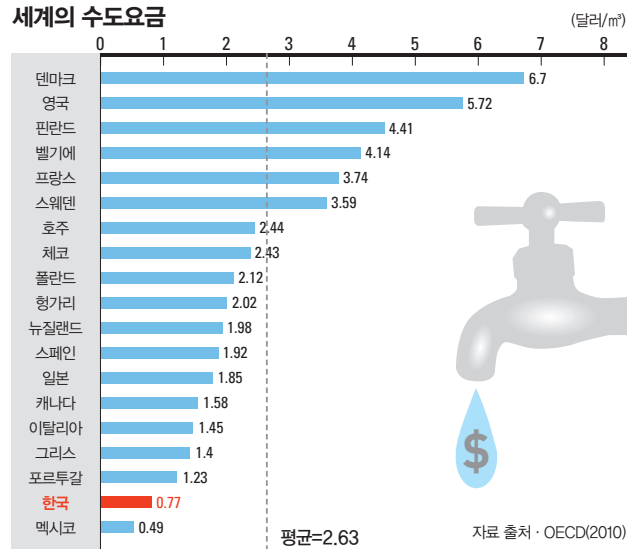
국토해양부는 "인천공항은 서비스 수준 등 일부는 세계적인 수준이지만 허브화 및 경영효율 측면 등에서는 주요 선진 공항에 비해 미흡하다"며 "최근 일본 및 중국의 공격적 허브화 전략으로 위협받고 있어 환경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제여객 기준 상위 50개 공항의 상당수(약 70퍼센트)가 일부 지분을 매각하거나 매각을 계획하고 있는 등 공항의 지분 매각은 세계적 추세라는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프랑스의 샤를드골 공항은 2006년 민간 공항운영사 ADP에 운영을 맡긴 뒤 매출이 연평균 9퍼센트 상승했으며, 2001년 민간 공항운영사 프라포트(Fraport)에 운영을 맡긴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공항 역시 꾸준한 성장으로 해외로 사업 확장까지 하고 있다고 성공 사례를 전했다.

특히 일부 지분 매각 과정에서 시행될 '주식상장(IPO)'은 최대 15퍼센트 이내에서 시행될 예정이며 이 가운데 40퍼센트 정도를 국민주 방식으로 일반 국민에게 배당하게 된다.

인천공항 일부 지분 매각에 반대하는 측에서 반대 근거로 내세우는 '인천공항 5연패'는 세계공항협의회(ACI)가 실시한 공항서비스평가(ASQ)에서 5년 연속 1위를 차지한 것이며, ASQ의 지표는 경영 합리성이나 효율성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화장실 청결, 친절도 등 단순히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평가에 불과하다고 국토해양부는 설명했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인천공항의 일부 지분 매각에 대해 정부 입장이 두어 차례 번복된 것으로 알려진 것은 지난 3월 발의된 인천공항공사법과 항공법이 현재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소위에 회부돼 있어 "연내 매각은 어려울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가 답변한 것이 '매각 철회'로 와전된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예산 | 보육·교육·다문화 예산 늘려

❶ 복지 분야 예산 규모는 2년 연속 역대 최고
❷ 보육·교육·다문화 예산 편성 33퍼센트 늘려

일부에서 '삭감됐다'고 주장하는 2011년 복지예산도 2년 연속 사상 최대 규모이며 특히 보육·교육·다문화가정 지원 등 서민 체감도가 높은 '3대 복지 부문'에 재원이 집중됐다.

지난 9월 2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11년 예산안이 3백9조6천억원(전년 대비 5.7퍼센트 증가)으로 확정된 가운데 복지 분야 예산은 86조3천억원(전년 대비 6.2퍼센트 증가)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정부 전체 예산안 중 복지 분야 예산이 차지하는 규모는 지난해(27.7퍼센트)에 이어 2년 연속 역대 최고(27.9퍼센트)를 기록했다.

특히 9월 16일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71차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3대 핵심 과제로 선정된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 ▲전문계 고등학생 교육비 전액 지원 ▲다문화가족 보육료 전액 지원을 위해 관련 예산을 3조7천억원 규모로 편성해 올해보다 33퍼센트 늘렸다.

이에 따라 보육 관련 예산이 3조3천억원, 전문계 고등학생 교육비 관련 예산이 3천6백70억원, 다문화가정 자녀 지원 예산이 3백30억원 규모로 마련됐다. G

글 · 박경아 기자

'G20 비즈니스 서밋' 저명 CEO 총출동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인 빌 게이츠 빌&멜린다게이츠재단 회장을 비롯해 세계 경제계의 스타급 최고경영자(CEO) 1백12명이 서울 G20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 의사를 밝혔다. 제조업과 정보기술(IT), 금융, 에너지, 유통, 해운 등 업종을 망라한 1백12개 참석 기업의 총자산은 30조 달러, 총매출액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약 5배인 4조 달러 규모다.

EPA
EPA
EPA
EPA
서울 G20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 의사를 밝힌 글로벌 CEO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주와 페터 브라베크 네슬레 회장, 프란츠 베렌바흐 보쉬 회장, 피터 보저 로열더치셸 CEO(왼쪽부터).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인 빌 게이츠 빌&멜린다게이츠재단 회장, 세계 최대 은행(자본 기준)인 뱅크오브아메리카(BOA)의 브라이언 모이니헌 최고경영자(CEO), 세계 최대 규모의 자산을 가진 BNP파리바그룹의 미셸 페베로 회장, 세계 최대 에너지기업인 로열더치셸의 피터 보저 CEO….

그 이름만으로도 묵직한 글로벌 비즈니스계의 쟁쟁한 스타급 CEO들이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에 맞춰 열리는 비즈니스 서밋에 속속 참석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주도로 처음 열리는 G20 비즈니스 서밋이 명실공히 '글로벌 스타 CEO들의 정상회의'가 될 전망이다.

서울 G20 비즈니스 서밋 조직위원회는 10월 10일 현재 빌 게이츠 회장 등 1백12명의 글로벌 기업 대표들이 비즈니스 서밋 참석 의사를 전했다고 밝혔다. 비즈니스 서밋은 서울 G20 정상회의(11월 11, 12일) 직전인 11월 10, 11일 개최돼 ▲무역 ▲금융 ▲녹색성장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 4개 어젠다(의제) 아래 12개 소주제별로 토의를 하고 보고서를 작성한다.

비즈니스 서밋 참석 기업의 규모 〈2010년 10월 10일 현재〉

	매출액	자산	기업 나이	직원 수
전체	4조 달러	30조 달러	100년 이상 30개	917만명
평균	439억 달러	3410억 달러	73년	10만명

※자료 활용이 곤란한 기업은 제외. 매출과 종업원은 92개, 자산은 88개 기업 대상.

참석 기업인의 면면을 보면 일찌감치 참석을 결정해 먼저 이름이 공개된 일부 CEO도 있지만 우선 업종별 세계 1위 회사 CEO들이 대거 참석한다. 네슬레(식품)의 페터 브라베크 회장과 아르셀로미탈(철강)의 락시미 미탈 회장, 아레바(원자력발전)의 안 로베르종 CEO, 발레(철광석 생산)의 로저 아그넬리 CEO, 머스크(해운)의 아인빈드 콜딩 CEO, 베스타스(풍력발전)의 디틀레프 엥겔 CEO, 보쉬(자동차 부품)의 프란츠 베렌바흐 회장 등이 각 업종 1위 기업의 CEO들이다.

빌 게이츠 회장 등 업종별 세계 1위 기업 대거 참석

국적별로는 한국(15명)을 비롯해 미국(12명), 프랑스(11명), 일본(8명), 중국(7명), 호주(4명) 터키(4명), 인도(3명), 러시아(3명), 독일(2명) 등 G20 회원국 기업인 86명이 참석한다. 또 스페인(5명), 네덜란드(2명), 덴마크(2명) 등 G20 비(非)회

원국 기업인 26명도 참석한다.

업종별로는 ▲제조·정보기술(IT) 35명 ▲금융 28명 ▲에너지 25명 ▲유통·해운 등 기타 24명이다.

비즈니스 서밋 조직위원회 오영호 집행위원장은 "현재 참석을 강력히 희망하는 기업이 상당수 있어 협의 중에 있다"며 "최종 명단에는 참석자가 추가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참석 기업들의 규모는 화려하다. 현재까지 참석이 확정된 기업들의 매출액을 모두 합하면 약 4조 달러(약 4천4백조원)로 지난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8천3백25억 달러)의 4.8배에 이른다.

이들 기업의 자산총액은 30조 달러로 전 세계 인구(2009년 기준 68억3천만명)가 하루 세 끼씩 빅맥 햄버거(미국 판매가 기준)를 1년 1개월 동안 먹을 수 있는 액수다.

스페인·네덜란드·덴마크 등 비회원국 기업인 26명도 참여

이들 기업의 고용 규모는 모두 9백17만명으로, 그리스와 스웨덴의 근로자를 합친 규모(9백80만명)와 비슷하다. 30만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한 기업은 중국 공상은행, 영국의 HSBC, 프랑스의 베올리아, 미국의 휴렛패커드 등 4개다.

이 밖에 설립한 지 1백 년 이상 된 기업도 30개에 달하며, 아시아 최대 제약사인 일본 다케다제약(1781년 설립)이 올해 기업 나이 2백29년인 '최고령 기업'이다. G

글·박경아 기자

G20 개발 컨퍼런스

G20 정상회의 '개발 이슈' 공감대 확산

'다 함께 성장하기 위한 개발 파트너십'을 주제로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가 주최한 '고위급 개발 컨퍼런스'가 영국, 프랑스, 중국 등의 경제 관련 고위직 및 경제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10월 13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컨퍼런스에는 앨런 윈터스 영국 국제부 수석이코노미스트, 피에르 자케 프랑스 개발청 수석이코노미스트, 추이텐카이(崔天凱) 중국 외교부 부부장, 조모 콰메 순다람 유엔 경제사회국 사무차장보, 하키 아킬 터키 외교부 경제담당 차관보 등 각국 정부 및 국제기구 관계자와 제프리 스콧 미국 피터슨연구소 수석연구원 등 민간 인사들이 주제발표 및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날 컨퍼런스는 ▲개발 이슈와 인프라 ▲무역 ▲복원력 있는 성장 및 식량안보 ▲새천년 목표(유엔 주도), 인적자원 개발 및 지식 공유를 주제로 한 4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사공일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서울 G20 정상회의를 통해 한국이 주도한 개발 이슈가 처음으로 G20 정상회의의 주요 어젠다로 논의될 예정"이라며 "개발도상국이 대부분인 비(非)회원국의 수요와 관심사항을 개발 이슈로 다룸으로써 G20 정상회의는 진정한 '글로벌 포럼'으로 위상을 높이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사공일 위원장은 이어 "한국은 앞으로 선진국과 개도국의 교량 역할을 수행해 G20 정상회의에서 개발 이슈 논의를 성공적으로 이끌 것"이라며 '다 함께 성장하기 위한 개발 프레임워크(Framework·국제 협력체제)'가 서울 G20 정상선언문에 채택될 것으로 기대했다.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가 주최한 '고위급 개발 컨퍼런스'가 10월 1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려 한국이 주도한 개발 이슈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하고 있다.

조영철 기자

G20 국가 관광장관들이 10월 13일 충남 부여군 백제문화단지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들이 참석한 가운데 10월 11~13일 열린 T20 관광장관회의에서는 관광을 통한 동반성장을 주내용으로 하는 'T20부여선언문'을 채택했다.

"세계 경제위기 극복에 첫 주도적 역할"

이명박 대통령, G20 정상회의 성공 개최 위해 준비상황 직접 챙겨

서울 G20 정상회의의 유치 주역인 이명박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의 개최를 한 달 앞두고 직접 준비상황 챙기기에 나섰다. 국무회의에서 대국민 홍보를 당부하는 것은 물론 외신기자들에게 세계 각국 간의 이견 줄이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는 등 성공 개최를 위한 준비에 적극 나서고 있다.

"단군 이래 대한민국이 세계에 이만큼 주도적 역할을 한 적이 없다. 세계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처음으로 대한민국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10월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서울 G20 정상회의의 개최 의미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서울 G20 정상회의(11월 11, 12일)를 한 달 앞두고 준비상황 점검에 여념이 없는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은 단순히 행사 주체가 아니라 세계 경제위기 극복에 중대한 기여를 하는 것"이라며 "매우 감격스럽지만 그만큼 책임도 무겁다. 그런 점에서 국무위원들도 관심을 갖고 국민들에게 잘 알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10월 11일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서울 G20 정상회의와 관련된 업무보고를 받았고, 점심때에는 서울 G20 정상회의를 주제로 외신기자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 대통령, 행사 일정·행사장 조성 등 점검

이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환율 문제라든지 정책이 서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결국 보호무역주의로 가게 되어 세계 경제를 매우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 "G20 정상회의 전까지 각국이 세계경제 관점에서 생각하고 그 이전까지 합의를 봐야 한다. 한국은 그런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0월 15일 열린 확대비서관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은 "서울

성공적인 서울 G20 정상회의 준비에 분주한 이명박 대통령이 10월 11일 외신기자 오찬 간담회에서 G20 정상회의 의제에 관한 각국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G20 정상회의는 세계로부터 대한민국을 인정받을 기회"라며 "이를 위해 각 부처가 G20정상회의 준비위원회에 적극 협조하고, 각자 할 일을 찾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10월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를 방문해 제7차 준비위원회 회의에 참석, 서울 G20 정상회의 주요 의제 준비와 행사 일정, 행사장 조성 상황 등을 직접 챙겼다.

이날 회의는 서울 G20 정상회의를 한 달 앞두고 열리는 '포괄적 준비회의'라는 점에서 그동안 G20 준비위원회 단장급들이 청와대에 들어와 보고하던 형식에서 벗어나 관계 부처 장관, 청와대 관계 수석, 준비위원회 민간위원 등이 참석했다.

정상회의장은 편리·안전·검소하며 실용적인 공간으로

회의에서는 우선 프레임워크(Framework·국제 협력체제), 국제금융기구 개혁, 금융규제 개혁, 글로벌 금융안전망, 개발 이슈 등 주요 의제에 대해 기한 내 합의를 마무리하고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구체적 대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각국 간 의견 조율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10월 22, 23일 경주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는 주요 의제들의 막바지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다.

또 11월 11일(목요일) 환영 리셉션과 업무 만찬이 열릴 국립중앙박물관은 자연스럽게 우리 문화유산을 접할 수 있도록 동선과 회의장을 준비하고, 12일(금요일) 정상회의가 개최될 회의장은 최대한 검소하고 실용적이게 준비하기로 했다.

공식 일정이 끝나는 11월 12일 저녁에는 특별 만찬과 문화공연을 마련하기로 했다. G

글·박경아 기자

서울 G20 정상회의 국민 인식 조사

국민 3명 중 2명 "G20 개최에 자부심"

우리 국민 3명 중 2명은 서울 G20 정상회의 개최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으며, 정상회의 기간 중 '물리적 시위'에 대해 국민 10명 중 8명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전국의 16~69세 남녀 9백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차 전화 여론조사에 따른 것이다.

이번 조사 결과 'G20 정상회의 개최에 자부심을 느낀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62.9퍼센트였으며, 76.1퍼센트는 '물리적 시위'에 대해 반대한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응답자의 85.7퍼센트는 'G20 정상회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변했으며 84.6퍼센트는 '우리나라가 서울 G20 정상회의 의장국임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서울 G20 정상회의가 성공한다면 우리나라 국가브랜드 가치가 높아질 것'이라는 응답자는 81.6퍼센트에 달했으며 '자발적 협조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도 71.7퍼센트였다.

지난 8월 같은 방법으로 실시한 1차 여론조사와 비교해볼 때 '한국이 이번 G20 정상회의 의장국임을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24.5퍼센트 포인트(60.1퍼센트→84.6퍼센트), '관심이 있다'는 응답자는 12.1퍼센트 포인트(44.2퍼센트→56.3퍼센트) 늘어나는 등 서울 G20 정상회의가 다가오면서 인지도와 관심, 자부심 등이 전체적으로 높아졌다.

서울 G20 정상회의 국민 인식 조사 결과

	1차 조사	2차 조사	증가 비율
G20를 들어본 적 있다	77.9%	85.7%	7.8%p↑
한국이 의장국임을 알고 있다	60.1%	84.6%	24.5%p↑
'물리적 시위'에 반대한다	–	76.1%	–
자발적 협조 의향 있다	64.2%	71.7%	7.5%p↑
G20 개최에 자부심 느낀다	54.8%	62.9%	8.1%p↑
G20에 관심 있다	44.2%	56.3%	12.1%p↑

※ **1차**: 8월 7~9일 **2차**: 9월 30일~ 10월 4일

제9차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에서는 태양광산업을 제2의 반도체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사진은 전남 신안군 지도읍에 자리한 세계 최대 규모의 추적식 태양광발전소.

2015년 세계 5대 신재생에너지 강국 도약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 신재생에너지 분야 40조 투자·물산업 육성

정부는 기후변화로 가치가 높아진 신재생에너지와 수자원으로 미래 녹색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다. 10월 13일 열린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에서는 2015년 세계 5대 신재생에너지 강국 도약과 21세기 블루골드 산업인 물산업 육성을 목표로 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우리처럼 물값이 싸고 물을 함부로 다루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10월 1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9차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 모두발언에서 "녹색성장은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앞서간다는 말을 듣지만 부담스럽다"며 이같이 일침을 놓았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 내면을 보면 기술이나 일상생활 면에서 유럽 등 선진국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외적 평가만큼 내실도 채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황식 국무총리와 양수길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환경부·국토해양부·특임 장관 등 관계 부처 공무원 1백50여 명이 참석한 이번 보고대회는 '미래를 여는 힘! 태양·바람·물'이라는 주제에 맞게 신재생에너지와 수자원을 성장동력으로 키워 미래 녹색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국가전략 마련에 중점을 뒀다.

이 대통령 "녹색성장 선도국다운 내실 채워야"

이 대통령은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을 선포한 후 사상 처음으로 한국형 원전을 수출하고, 세계 두 번째 양산형 전기자동차를 개발했으며 2차전지, LED 등 분야에서 산업적 성과를 이뤘다"면서 "급성장하는 세계 녹색시장의 규모를 감안하면 태양광, 풍력산업 등을 제2의 반도체, 제2의 조선업으로 육성해 미래 국가산업의 중추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최근 폭염과 홍수로 기후변화가 바로 나와 이웃의 문제이며 '물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물밖에 없다'

는 점을 인식하고 정부가 1백 년, 2백 년을 바라보는 수자원 종합전략을 수립할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물산업이 21세기 핵심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우리의 수자원 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 진출을 적극 추진해 물산업을 육성하고 국제사회에도 공헌해야 한다"고 역설하며 기후변화로 가치가 높아진 태양, 바람, 물 같은 자연자본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날 보고대회에서 정부는 2015년까지 세계 5대 신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총 40조원(정부 7조원, 민간 33조원)을 민관 합동으로 투자해 태양광을 제2의 반도체산업, 풍력을 제2의 조선업으로 키워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차세대 태양전지, 해상용 대형풍력 등 10대 핵심기술 개발에 1조5천억원, 태양광 장비와 풍력부품 등 8대 부품의 기술 개발과 국산화에 1조원을 지원하는 등 연구개발(R&D) 및 사업화에 2015년까지 3조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수출 1억 달러 이상 글로벌 스타기업 50개 육성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수출 1억 달러 이상의 글로벌 스타기업도 2015년까지 50개를 육성할 방침이다. 또한 자금난 해소를 위해 대기업, 발전사, 금융권 공동으로 1천억원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전문 상생보증펀드를 조성해 유망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1조6천억원의 대출을 보증하는 등 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홍수 방어능력을 키우고 하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기후변화 대응전략과 21세기 블루골드 시장인 물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물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했다.

물 분야에서는 정보기술(IT)에 기반을 둔 지능형 상수도 기술을 비롯한 원천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내년부터 2020년까지 1조5천5백30억원을 단계적으로 투입하기로 했다.

'먹는 물 산업단지' 구축 및 물 재이용 시설 신설 등을 통해 친환경 대체용수 산업을 육성하는 데는 2016년까지 1조6천8백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아울러 녹색펀드, 각종 연기금을 활용한 금융지원 등을 통해 물산업 기반도 구축한다.

정부는 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EACP)의 일환으로 2015년까지 아제르바이잔, 몽골, 필리핀 3개국을 대상으로 총 7백80억원 규모의 해외 물 랜드마크 사업도 실시할 예정이다. 단일 사업으로는 우리나라 무상원조 역사상 최대 규모다.

녹색성장위원회 김상협 녹색성장환경비서관은 "몽골, 아제르바이잔, 필리핀은 각각 동북아시아,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를 대표하는 지역이므로 물 관리 랜드마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특히 필리핀에서 벌일 농업용수 확보와 홍수 저감을 위한 소규모 저류시설 건설 사업은 필리핀의 6·25 참전 60주년을 기념하는 상징적 사업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동아DB

이명박 대통령이 10월 13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9차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에 참석한 뒤 김황식 국무총리 등과 함께 국제 전시회인 신재생에너지 대전을 관람하고 있다.

한편 이날 보고대회에서는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의 본격 시행에 맞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이 함께 논의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목표관리제 이행과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2015년까지 민간과 함께 총 40조원을 투자해 태양광과 풍력 분야를 국가의 주요 산업으로 키우기로 했다. 또한 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EACP)의 일환으로 2015년까지 아제르바이잔, 몽골, 필리핀 3개국을 대상으로 총 7백80억원 규모의 해외 물 랜드마크 사업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 방안은 ▲대·중소기업 간 '그린 크레디트(Green Credit)' 도입 ▲목표관리제 이행체계 구축 ▲설비투자 지원 강화 ▲에너지 진단 효율성 제고 ▲온실가스 감축 인센티브 강화 ▲기술지원 및 정보 제공 등 6가지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그린 크레디트는 대기업의 자금과 기술 지원으로 중소기업이 달성한 온실가스 감축실적의 일부를 대기업의 감축실적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앞으로 대기업의 중소기업 지원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그린 크레디트의 추진 근거와 세부 추진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 개최 등 지속적인 홍보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G

글 · 김지영 기자

"한국의 녹색성장, 전 세계가 큰 기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총회… 국지환경 변화 대륙별 감시 강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의 제32차 총회가 10월 11일부터 나흘간 부산에서 열렸다. 이번 총회에는 라젠드라 파차우리 IPCC 의장을 비롯해 세계기상기구(WMO), 유엔환경계획(UNEP) 및 1백94개 회원국 대표 등 4백여 명이 참석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특별보고서 작성 등 14개 의제를 논의했다.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국제적 움직임이 날로 활발해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이끄는 견인차 구실을 하는 것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다.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환경계획(UNEP)이 1988년 11월 공동으로 설립한 IPCC는 기후변화에 과학적, 체계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매년 총회를 열고 있다.

제32차 총회는 10월 11일부터 나흘간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열렸다. 기상청이 환경부, 외교통상부와 함께 주최한 이번 총회에는 라젠드라 파차우리(인도) IPCC 의장을 비롯해 세계기상기구와 유엔환경계획 대표, 한승수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이사회 의장, 이만의 환경부 장관, 허남식 부산시장, 1백94개 회원국 대표 등 4백여 명이 참석했다.

기후변화 특별보고서·부의장 선출 등 14개 의제 논의

우리나라에서도 전병성 기상청장을 수석대표로 환경부 등 9개 관계 부처 공무원과 전문가 36명이 정부 대표로 참가했다. 개막일인 11일 환영만찬에는 김황식 국무총리도 참석했다.

파차우리 IPCC 의장은 개회사에서 "한국의 녹색성장을 세계가 큰 기대를 안고 지켜보고 있다. IPCC의 제5차 평가보고서 작성 기간 동안 녹색성장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수행한 사업과 그 결과에 대한 보고서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다"며 우

칸 국제광고제 한국사무국, ATC Responsible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단 한 통의 용해제가 수백만 리터의 물을 오염시킬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은 옥외광고. 광고대행사 '스페인 마드리드 콘트라푼토'가 2007 칸 국제광고제에 출품해 옥외 부문 은상을 수상한 작품이다.

리나라의 녹색성장 정책에 큰 관심을 드러냈다.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환영사에서 "대한민국은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국가 비전을 수립하고, 올해 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해 2020년까지 탄소 배출치(BAU) 대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30퍼센트로 자발적으로 정했다"면서 "기후변화에 직면해 있는 우리는 후대를 위해 지속가능한 녹색 세상을 만들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말했다.

전병성 기상청장은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이상기후는 취약지역 주민들에게는 더욱 위협적이기에 적절한 대응전략 수립이 시급하다"며 "국가적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데는 미래 기후변화 예측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여야 하는 만큼 IPCC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상청

IPCC의 1백94개 회원국 대표들이 10월 14일 제4차 평가보고서의 오류 논란에 대해 권고사항을 제시한 국제아카데미위원회(IAC) 보고서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IPCC는 각국 과학자가 참여해 기후변화의 원인과 생태, 사회·경제적 영향평가, 대응전략 등을 담은 보고서를 펴내고 있다. 이 보고서는 정부 간 협상의 근거자료로 쓰인다.

이번 총회에서는 2014년에 발표될 제5차 평가보고서의 종합보고서(Synthesis Report)에 들어갈 핵심 내용을 구성하고,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다뤘다. 아울러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2종의 특별보고서 작성, 공석인 IPCC 부의장 선출 등 14개 의제를 논의했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는 제4차 평가보고서의 오류 논란과 IPCC 조직 전반에 대해 권고사항을 제시한 국제아카데미위원회(IAC) 보고서 내용 검토에 집중했다. 이는 IPCC 보고서의 미래 평가방향과 IPCC의 활동방향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의제이기 때문이다.

"5차 평가보고서에 세분화된 국지적 기후변화 다룰 것"

개회식을 제외하고 모든 일정을 비공개로 진행한 이번 총회의 결과는 10월 14일 저녁 내외신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됐다. 파차우리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은 기자회견에서 2014년 발표될 IPCC의 제5차 평가보고서에는 이전 보고서보다 구체화된 국지적 기후변화 내용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파차우리 의장은 "이번 총회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점은 국지적인 환경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5차 보고서를 통해) 세분화된 지역별 기후변화에 대한 내용을 다루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후변화의 영향과 취약성 등에 대한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크리스 필드 제2실무그룹 공동의장은 "기후 영향과 적응, 취약성 등 새롭고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질 것이다. 또한 해수면 상승이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지역에서 어떤 기후변화 영향이 있을지도 다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IAC 권고안에 대해서는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권고 내용을 신중하게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파차우리 의장은 "IAC의 권고안에 공감한다. 보고서의 불확실성을 지적한 부분이나 오류에 대해 인정하며 단계적으로 개선해나갈 것"이라며 "IAC의 권고안 중 일부는 즉각 실현하기로 했고, 그 밖의 복잡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신중하게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IIPCC는 회원국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TF팀을 구성하고, 이들이 권고사항에 대해 발표한 리포트는 내년 5월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열리는 제33차 총회 때 발표할 예정이다.

크리스 필드 제2실무그룹 공동의장은 2007년에 발표된 제4차 보고서 내용 중 '2035년까지 히말라야 빙하가 소멸될 것'이라는 등의 오류 부분에 대해 "이런 오류에 대한 내용을 통합해 (제5차 보고서의) 한 챕터에 다루기로 했다. 히말라야 빙하의 정의에 대한 오류도 수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기상청은 이번 총회를 위해 환경부와 공동으로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했다. 10월 8일에는 서울 코엑스에서 이번 총회 개최를 기념하는 '2010 국제 기후변화 전문가 초청 심포지엄'을 열었으며 총회 기간에는 '국가 기후변화 대응 홍보전시관'을 설치해 운영하기도 했다. 기상청을 비롯한 12개 부처와 기관이 참여한 홍보전시관은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전략과 대응정책을 소개하는 마당으로 활용됐다.

기상청 박정규 기후과학국장은 "이번 총회는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선도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중추적 역할을 표명하고, 국가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기상청은 앞으로도 IPCC 활동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G

글 · 김지영 기자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10·27법난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법난 피해자들의 간담회가 개최된다. 사진은 지난해 10·27법난 행사로 열린 피해자 간담회.

10·27법난 명예회복委 2013년까지 연장

법회·세미나·피해자 간담회 등 법난 30년 다양한 행사 마련

신군부가 불교계 정화를 명분으로 자행한 10·27법난이 발생한 지 올해로 30년이 됐다. 불교계는 그동안 한국 불교의 명예회복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펼쳐왔고, 정부도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활동을 2013년까지 연장하고 피해 신고를 받고 있다. 10월 27일에는 법회와 함께 세미나, 피해자 간담회 등 법난 30년 행사가 열린다.

10·27법난은 1980년 10월 27일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합동수사단이 불교계 정화를 명분으로 대한불교조계종 승려와 불교 관계자들을 강제 연행하고 전국 사찰을 수색한 사건이다.

당시는 계엄령 치하였다. 전국 5천7백31개 사찰과 암자에 들이닥친 계엄군은 재산 축적과 축첩에 관한 비리를 조사한다는 구실로 1천9백29명의 승려들을 마구잡이로 연행해 고문 수사했다. 송월주 당시 조계종 총무원장도 보안사령부로 끌려가 20여 일간 불법 구금을 당한 채 사표를 강요받았다.

불교계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 당사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을 남긴 10·27법난에 대해 불교계는 그동안 명예회복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펼쳐왔다. 스님들뿐 아니라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민중불교운동연합 등 불교단체에서도 법난의 부당성을 알리고 사과와 피해보상을 요구해왔다.

이 같은 노력으로 2008년 3월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고, 이에 근거해 그해 12월 국무총리실 산하에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가 발족됐다.

법난 피해 신청 63건… 10건 의료지원금 지급 결정

또 지난해 12월에는 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2013년 6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10·27법난의 명예회복과 기념사업을 위한 위원회 활동이 한결 수월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위원회는 현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인 영담스님을 위원장으로 정부 부처 관계자 및 불교계 관계자, 민간위원 등 모두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회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10·27법난 피해 신청을 접수해 총 14차례의 회의를 통해 피해 신청을 심의 처리했다. 이 기간에 접수된 피해 신청은 총 63건(명예회복 41건, 의료지원 22건)으로, 이 가운데 명예회복 28건, 의료지원 21건에 대해 피해자 인정처리를 했고, 10건에 대해 의료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 피해 신청은 내년 12월 31일까지 계속 받는다. 신청 대상은 법난으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사망 시 유족 포함)과 종교적 존엄성과 명예를 훼손당한 대한불교 조계종 및 법난 당시 피해자가 소속된 사찰이다.

피해 신고 및 명예회복 신청서 또는 피해 신고 및 의료지원금 지급 신청서 각 1부나 피해 경위서 1부, 신분증 사본, 진단서 등과 그 밖에 신청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법난 명예회복 차원에서 역사교육관 세우기로

신청 서식은 위원회 홈페이지 '10·27법난 자료실', 조계종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10·27법난 피해자 신청 접수안내' 및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알림마당의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심의위원회 신청공고 바로가기' 등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위원회에서는 이와 함께 10·27법난 관련 자료를 찾고 있다. 법난 관련 신문기사, 영상물, 사진, 일기, 기고문, 서신, 증언록 등으로 향후 건립될 역사교육관 내 전시 및 자료 발간에 사용할 예정이다.

역사교육관 건립은 10·27법난의 명예회복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2007년 7월 제4차 위원회 회의에서 역사교육관 건립 예산 규모를 1천5백억원으로 의결한 바 있으며 향후 조계종과 협의해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위원회는 역사교육관에 전시할 자료를 모으기 위해 법난 피해 사찰과 스님 등을 방문해 자료를 수집하는 동시에 명예회복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최근 위원회는 법난 30년을 맞아 10·27 소식지를 발간했다. 위원장 영담스님은 발간사에서 "위원회가 의료지원금 지급과 명예회복 방안으로 제시된 역사교육관 건립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지만 아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불교계의 아픔을 치유하고 명예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려면 불교계 내부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며 당사자가 주인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또한 10·27법난 30년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법난의 역사적 진실을 널리 알려 향후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한국 불교의 명예를 회복해 국민화합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다.

10월 27일 오전 11시 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는 10·27법난 피해자들의 간담회가 마련되며, 이날 오후 2시에는 조계사 대웅전에서 법난 30년 법회가 열린다.

또 10월 29일 오후 2시에는 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법난의 역사적 교훈과 피해자 명예회복 보상방안 연구 등을 발표하는 세미나가 개최된다. 연극 공연과 영상물로도 법난을 알린다. 10월 21일부터 27일까지 매일 오후 7시 30분 불교역사문화기념관 내 전통문화공연장에서 법난으로 피해를 본 스님의 고뇌를 담은 연극 〈뜰 앞의 잣나무〉 공연이 펼쳐진다.

법난의 발단에서부터 증언, 진실, 관련자, 명예회복 방안과 실천과제 등을 담은 영상물은 10월 27일 MBC에서 방송할 예정이다. G

글 · 이혜련 기자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 02-748-5555 www.1027beopnan.go.kr
대한불교 조계종 www.buddihism.or.kr
문화체육관광부 www.mcst.go.kr

10월 27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조계사 대웅전에서는 10·27법난 30년 법회가 열린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10·27법난 명예회복을 위한 법회. 조계종 전 총무원장 지관스님이 봉행사를 읽고 있다.

때 묻지 않은 자연을 담았습니다.

오솔길을 달리는 자전거에 파란 하늘을 싣고, 풀 섶 사이로 흐르는 맑은 물에 시간을 담그고...

때로는 예쁜 나비와 함께 걸었습니다.

환경친화적 저탄소 녹색관광이 지구 온난화를 예방합니다.

기 획 특 집

1988 올림픽, 2002 월드컵 그리고 2010 F1

지축을 울리는 굉음과 함께 트랙을 질주하는 화려한 레이싱카들의 향연, 포뮬러원(F1) 월드챔피언십 2010 코리아 그랑프리가 10월 22일부터 사흘간 전남 영암에서 개최된다.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스포츠'로 꼽히는 F1은 연간 4백만명의 관중을 불러모으고 6억명의 시청자가 지켜보는 세계 모터스포츠의 최고봉이다. 첨단 자동차 기술의 진면목을 보여줄 '선진국형 레저스포츠'인 F1은 영암지역을 동북아 관광허브로 이끌고 대한민국을 선진 스포츠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게 할 것이다.

‘모터스포츠의 꽃’ F1 전남 영암서 스타트

한국, 올림픽·월드컵과 더불어 ‘세계 3대 스포츠’ 개최국 되다

세계 ‘모터스포츠의 꽃’으로 불리는 스피드의 제전 포뮬러원(F1) 경기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개최된다.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전남 영암에서 열리는 2010 F1 코리아 그랑프리 개최로 우리나라는 올림픽, 월드컵과 더불어 세계 3대 스포츠 대회 개최국 반열에 들게 됐고 영암은 지역경제에 막대한 파급효과를 기대하게 됐다.

한적한 주말 도심을 뒤흔드는 자동차의 굉음, 펄럭이는 깃발. 흰색 연기를 내며 순간 가속해 질주하는 화려한 레이싱카…. 10월 3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일대에서는 국내에서 볼 수 없던 '포뮬러원(Formula One · F1)' 퍼포먼스가 벌어져 시민들의 경탄을 자아냈다.

세종로 네거리에서 서울광장까지 약 5백50미터 구간에서 펼쳐진 이날 행사는 '르노삼성자동차와 함께하는 르노 F1팀 시티 데모'였다.

르노 F1팀 드라이버인 제롬 담브로시오가 보여주는 R29 머신(배기량 2천4백 시시 · 7백50마력)의 순간 가속과 회전기술은 현존하는 자동차 기술의 집약체인 레이싱카의 면모를 과시하며 F1의 매력을 잠시라도 맛볼 수 있게 해줬다.

이번 행사는 2010 F1 코리아 그랑프리 조직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전남 영암에서 개최하는 2010 F1 코리아 그랑프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1988년 서울올림픽과 2002년 한일월드컵을 개최하고도 모터스포츠 분야에서는 거의 '불모지' 상태였던 우리나라에서 처음 열리는 F1 대회는 국제자동차연맹(FIA)이 주최하는 세계 최정상급 스포츠 이벤트다. 이번 F1 대회 개최로 우리나라는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스포츠 대회를 모두 개최하는 여덟 번째 국가가 된다.

한곳에서 펼쳐지는 일회성 경주가 아니라 세계 각지를 돌며 연간 17~20차례 레이스를 펼쳐 최종 승자를 결정하는 F1이 세계적 스포츠로 꼽히는 이유는 어마어마한 관중 동원력과 경제적 파급효과 때문이다.

경주팀 연간 예산 2조5천억원 · 연간 후원금 2조원

첨단 자동차 기술과 거대 자본이 결합한 F1 대회는 경기당 평균 관람객이 20만명 이상, 연간 누적 관람객이 4백만명을 넘어선다. 또 현존하는 국제경기대회 중 미디어 노출효과가 가장 큰 대회다(전 세계 시청자 수 6억명 이상). 미디어 노출에 따른 홍보효과는 분당 12억원에 달한다.

F1에 출전하는 경주팀의 연간 예산은 우리 돈으로 2조5천억원 규모이며 스폰서십(후원기업)의 연간 후원금도 2조원에 이른다. '머신'으로 불리는 F1 레이싱카의 대당 가격도 1백억원대다. F1 드라이버들의 연봉도 수천만 달러에 이른다. 'F1의 전설'로 불리는 미하엘 슈마허의 경우 전성기에는 연간 9백60억원을 벌어들이기도 했다.

특히 F1의 스폰서십은 <포춘>지 선정 1백대 기업 중 35퍼센트가 참여할 정도로 기업들이 선호하고 있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이 연인원 47억명이 TV를 시청하고 2조2천억원의 수익을 거뒀던 것과 비교하면 아직 우리 국민에게 낯선 F1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놀라울 정도다.

이렇게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지닌 F1 레이스의 한 축인 코리아 그랑프리의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 F1 코리아 그랑프리 운영법인인 KAVO(Korea Auto Valley Operation)와 F1 대회 조직위원회는 이번 코리아 그랑프리에 20만명의 국내외 관람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해부터 2016년까지 7년간 개최하게 되는 F1 코리아 그랑프리(이후 연장 개최 가능)에 소요되는 예산은 7년간 7천3백30억원(국비 1천1백30억원, 도비 1천1백30억원, 민자 5천70억원)이다.

하지만 F1 코리아 그랑프리 개최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이를 능가한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과학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생산 유발효과 1조8천56억원 ▲소득 유발효과 4천3백64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8천6백50억원 ▲고용 유발효과 1만7천9백94명 등으로 나타났다.

"F1 대회, 2700여 억원 경제적 효과 낼 것"

10월 22일부터 사흘간 세계인의 뜨거운 관심이 집중될 F1 코리아 그랑프리가 치러지는 영암 인터내셔널 서킷(경주용 트랙)은 그동안 경제발전에서 소외돼온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정된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개발구역 내에 자리하고 있다.

전남도는 영암 일대를 관광 · 레저스포츠산업과 첨단 자동차산업의 중심지로 만들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개발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또한 그 일환으로 2005년부터 F1 유치를 추진해 F1 주관기관인 영국의 포뮬러원 매니지먼트(FOM)와 협상에 들어가 2006년 2월 한국 개최에 합의했다. F1 코리아 그랑프리를 치르기 위해 2007년 7월 영암 인터내셔널 서킷이 착공됐으며, 완공된 서킷은 10월 12일 FIA의 최종 검수를 통과하면서 성공적인 코리아 그랑프리 개최를 위한 시동이 걸렸다.

전남도는 이번 검수 통과와 함께 코리아 그랑프리의 성공적 개최에 온 힘을 쏟고 있다. 대회 흥행을 좌우할 입장권 판매에 매진하는 것은 물론 숙박, 교통, 부대행사 등 대회 준비에 여념이 없다.

전호문 목포대 체육학과 교수는 "향후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것은 물론 F1 경기장 인근에 튜닝산업 클러스터가 조성되고 자동차 관련 연구소가 들어서 인력 양성과 일자리 창출 같은 파급효과가 막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G

글 · 박경아 기자

사진 · 동아DB

'F1' 이런 거구나!

12개 팀 24명 선수가 19개국 돌며 경주 펼쳐

F1은 12개 팀 24명의 선수가 전 세계 19개국을 돌며 그랑프리를 치르고 각 그랑프리의 승점을 합산해 월드 챔피언을 결정한다. 미하엘 슈마허 등 쟁쟁한 선수들이 대당 1백억원이 넘는 경주차를 몰고 시속 3백 킬로미터 이상으로 달리는 화끈한 경주를 이젠 우리나라에서도 즐길 수 있다.

F1은 국제자동차연맹(FIA)이 주관하는 세계 최정상의 자동차 경주대회로, 공식명칭은 FIA 포뮬러원(F1) 월드 챔피언십(FIA Formula One World Championship)이다. 1950년부터 시작돼 자동차 경주대회 중 역사가 가장 길며, 연 4백만명의 관중과 6억명의 시청자를 확보하고 있어 올림픽, 월드컵과 더불어 세계 3대 스포츠 이벤트로 꼽힌다.

F1은 매년 17~20개국을 순회하며 2, 3주 간격으로 경주가 열리는데, 각각의 경주를 그랑프리라고 한다. 올해는 12개 팀 24명의 선수(한 팀에 드라이버 2명)가 19개국을 돌며 경주를 펼치고 있으며,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전남 영암에서 개최되는 코리아 그랑프리는 17번째 경주다.

그랑프리마다 1위에서 10위까지 25, 18, 15, 12, 10, 8, 6, 4, 2, 1점을 부여하고, 각각의 그랑프리 점수를 합산해 최종 승자를 가린다. 시상은 드라이버(개인) 부문과 컨스트럭터(팀) 부문으로 나눠서 한다. 그랑프리 합산 최다 득점자가 드라이버 월드 챔피언이 되며 소속팀 선수 2명의 합산점수로 컨스트럭터 월드 챔피언이 결정된다.

자동차 번호는 지난해 성적 기준으로 부여

F1 머신(경주차)에는 각각의 번호가 붙어 있는데, 이 번호는 지난해 성적을 기준으로 부여한다. 1번은 지난해 드라이버 챔피언, 2번은 1번 선수의 팀 동료에게 배정되고, 3번부터는 지난해 컨스트럭터 챔피언십 순위로 결정된다.

이에 따라 올해 F1 대회 1번은 지난해 챔피언인 젠슨 버튼(맥라렌)이, 2번은 루이스 해밀턴(맥라렌)에게 배정됐다.

미하엘 슈마허(메르세데스GP)가 3번인 것은 지난해 컨스

동아DB

연간 4백만명이 관람하고 6억명이 시청하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스포츠
F1 그랑프리가 한국에서 열린다. 연봉 수천만 달러에 1백억원짜리 F1 머신을 타는 세계적인 드라이버들의 질주를 눈앞에서 볼 수 있다.

트럭터 챔피언인 브라운GP가 메르세데스GP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F1 선수는 전 세계에 24명뿐이다. 아쉽게도 우리나라에는 없다. F1 선수가 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까? 간단히 말하면 전 세계에서 진행되는 각종 자동차 경주에서 실력을 키워 F1에 출전하고 있는 12개 팀에 스카우트되면 된다.

하지만 F1을 꿈꾸는 수많은 선수들 사이에서 그 경쟁을 뚫기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힘들다. 게다가 F1팀의 눈에 든다고 바로 출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2, 3년간 테스트 드라이버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F1 선수들은 대개 20대 초반에 데뷔한다. 오랫동안 하위 레이스에서 선수생활을 하고 F1 테스트 드라이버로 활동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미 10세 이전에 F1을 목표로 카트 레이싱을 시작한다고 볼 수 있다. 슈마허의 경우에는 네 살 때 카트 레이싱에 입문했다고 한다. F1 선수가 되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일이다.

현재 F1 선수 가운데 아시아인은 일본의 고바야시 가무이와 야마모토 사콘, 인도의 카룬 찬독이 있다. 일본은 그동안 20여 명이 F1에 참가했고 태국, 말레이시아 등에서도 F1 선수를 배출했다.

F1은 국가대항전은 아니지만 F1 시상대에는 우승한 선수의 국기가 올라가고 국가가 연주된다. 60년 F1 역사상 최다 우승국은 영국으로, 10명의 월드 챔피언을 포함해 19명의 선수가 총 2백7승을 거뒀다. 6명이 1백10승을 거둔 독일과 1백1승을 올린 브라질이 그 뒤를 잇고 있다.

말레이시아 그랑프리, 체력한계 시험하는 혹독한 경주

F1의 중심지는 유럽이지만 아시아에서도 점차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올 시즌 19개의 F1 그랑프리 중 7개 대회가 바레인, 말레이시아, 중국, 싱가포르, 일본, 한국, 아부다비 등 아시아에서 열리고 있다.

아시아에서의 F1 그랑프리 가운데 가장 열기가 뜨거운 것은 말레이시아 그랑프리다. 체감온도 섭씨 50도에 육박하는 폭염에 시달리거나 폭우 속에서 수중전으로 치러져 선수들의 체력적 한계를 시험하는 혹독한 경주로 유명하다. 하지만 이런 악조건이 오히려 이 대회의 볼거리로 작용하고 있다.

또 F1 그랑프리 중 유일하게 야간에 열리는 싱가포르 그랑프리는 화려한 야경을 배경으로 질주하는 자동차가 관광산업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올 시즌을 시작으로 향후 7년간 F1 그랑프리를 개최하며 F1 중심국으로 접근하고 있다. G

글 · 이혜련 기자

숫자로 보는 F1

"상징적 숫자에 F1의 모든 게 담겨 있다"

0.078 F1 머신이 1마력의 힘을 내는 데 필요한 연료의 양이다. 일반 자동차는 1마력에 0.09리터 이상의 기름을 먹으니 F1 엔진이 일반 엔진보다 20퍼센트 정도 효율이 좋은 셈이다.

1.9 F1 머신이 시속 2백 킬로미터로 달리다 완전히 정지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단 1.9초다. 이때 필요한 제동거리는 55미터.

2.4 F1 머신이 정지상태에서 출발해 시속 1백 킬로미터까지 속도를 내는 데 걸리는 시간은 2.4초에 불과하다. 정지상태에서 시속 2백 킬로미터까지는 5초가 소요되며 거리상으로는 1백40미터에 지나지 않는다.

2.9 F1 피트 크루(경주장 안에 마련된 정비소에서 경주를 지원하는 팀)들이 F1 머신의 타이어 4개를 새것으로 바꾸는 데 걸리는 시간. 단 2.9초 만에 작업을 끝내는 장면은 F1의 진기한 볼거리다.

50 경기 중 F1 머신 운전석의 온도는 섭씨 50도에 이른다. 경기를 한 번 치르고 나면 땀으로 2리터 정도 수분이 배출되는데, 이는 테니스 선수가 풀세트 접전을 펼쳤을 때의 체력 소모와 같은 수준이다.

80 한 경기에 투입되는 팀원의 숫자. 유럽 이외의 대륙에서 열리는 경기에는 20명 정도가 더 줄어든다. 실제로 F1팀은 보통 6천명 정도의 인원으로 구성되며 80명은 현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므로 빙산의 일각이라고 할 수 있다.

100 F1 머신이 달릴 때 타이어가 달궈지는 최대 온도. F1 타이어의 적정온도는 대략 섭씨 90도 정도로, 더 낮아도 제 성능을 내지 못한다. 그래서 레이스 출발 직전에는 타이어 워머라고 불리는 일종의 전기장판을 타이어에 감아둔다.

620 규정에 따르면 F1 머신과 운전자의 몸무게를 합쳐 6백20킬로그램 이상이 돼야 한다. 신소재를 사용하는 F1 머신은 워낙 가볍기 때문에 규정된 무게를 맞추기 위해 차 아랫부분에 별도의 무게추(평균 1백 킬로그램)를 달기도 한다. F1 머신의 무게는 4백 킬로그램 정도. 일반 차의 무게는 1천5백 킬로그램이 넘는다.

700 한 번의 그랑프리에서 소모되는 타이어의 개수. 타이어 공급업체는 성격이 다른 두 종류의 타이어와 비가 올 때를 대비한 레인 타이어를 제공한다.

750 F1 머신의 엔진 출력은 7백50마력이다. F1 머신의 배기량은 2.4리터로 현대차 쏘나타와 같지만 쏘나타는 같은 크기의 엔진으로 1백79마력밖에 내지 못한다.

한국의 美 살린 '꿈의 경주장'

12만4천명 수용… 최첨단 하이브리드 트랙 갖춰 '그레이드 A' 판정

총길이 5.615킬로미터의 F1 전용 트랙을 갖춘 전남 영암 F1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이 10월 12일 국제자동차연맹(FIA)의 최종 검수를 통과했다. 바다와 호수를 낀 아름다운 자연 속에 자리 잡은 수용인원 12만4천명 규모의 영암 서킷은 최첨단 하이브리드 트랙이자 머신의 최고속도를 이끌어내는 긴 직선코스, 보기 드문 시계 반대 방향 주행로 등을 갖춘 '꿈의 경주장'이다.

"1백 퍼센트 만족할 만큼 완벽한 경기장이다. 안전하면서도 관중석과 트랙 사이 간격을 좁혀 박진감 넘치는 레이스가 될 것이다."

10월 12일 찰리 화이팅 위원장을 비롯한 국제자동차연맹(FIA) 검수단이 전남 영암군 삼호읍에 있는 F1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이하 영암 서킷)을 최종 검수한 후 쏟아낸 극찬이다.

검수단이 이날 영암 서킷에 내린 판정은 '그레이드 A'. 정교한 트랙 노면의 평탄성은 물론 국제적 기준의 안전시설이 확보돼야 받을 수 있는 등급으로, 레이싱 트랙의 FIA 인증 등급 A~E 중 최고다. 이는 국내 최초이자 세계에서는 68번째로 F1 대회를 치를 조건을 갖춘 서킷으로 인증받은 것이다.

영암 서킷의 레이스 관련 시설은 검수 전 완공됐다. 10월 22~24일로 예정된 F1 대회 이전까지 남은 공정은 가설 관중석, 경주장 진입로 조경과 주차장 단장 등 소소한 마무리 부분이다. 2007년 착공해 3년 가까운 공사 끝에 당당하게 국제 규격의 서킷으로 공인된 영암 서킷에는 어떤 특장점이 있을까.

먼저 경주장 트랙 길이부터 세계 정상급이다. 영암 서킷의 전체 트랙 길이(5.615킬로미터)는 올해 F1 대회를 개최했거나 개최하는 세계 19개국 서킷 가운데 벨기에 스파-프랑코샹(7킬로미터), 바레인 인터내셔널(6.299킬로미터), 일본 스즈카(5.8킬로미터), 이탈리아 몬자(5.7킬로미터) 서킷에 이어 5위다. 각국 서킷의 평균 길이(4.89킬로미터)도 크게 웃돈다.

트랙 길이 세계 정상급… "100퍼센트 완벽한 경기장"

영암 서킷은 긴 트랙을 활용해 고속과 저속 트랙을 탄력적으로 사용하는 최첨단 '하이브리드 서킷'이다. 즉 F1 대회 때는 총길이 5.615킬로미터를 모두 활용한 F1 전용 트랙, 중소

10월 11일 전남 영암 서킷에 대한 국제자동차연맹(FIA)의 현장 실사가 진행된 가운데 찰리 화이팅 FIA 위원장(가운데) 등이 트랙을 둘러보고 있다.

KAVO

규모 카 레이싱 경기 때는 그중 3.045킬로미터만 사용하는 상설 트랙 등 2개 코스로 활용할 수 있다.

레이싱에서 머신의 속도와 성능을 시험하는 데도 영암 서킷은 뛰어난 조건을 갖추고 있다. 18개 코너가 있는 영암 서킷의 직선구간 중 가장 긴 구간은 1.2킬로미터. 그리드(출발선)를 통과해 첫 번째 코너를 지나 쭉 뻗은 구간이다. F1 대회를 유치한 아시아지역 서킷 가운데 정상급 직선주로다.

머신은 이 코스를 최고시속 3백20킬로미터(시뮬레이션 기준)로 순식간에 주파한다. 최신 자동차 엔진의 성능과 한계를 시험할 수 있는 꿈의 레이싱 구간이다.

영암 서킷은 보기 드물게 반시계 방향 주행로를 갖췄다. 반시계 방향은 드라이버와 관람객의 긴장감을 극한까지 몰고 가게 한다. 대부분의 F1 서킷은 시계 방향으로 돌도록 설계돼 있다. 레이싱 트랙이 등장하기 시작한 1백여 년 전부터의 관행이다.

하지만 최근 몇몇 경주장은 관행을 깨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향하도록 하는 예외를 만들었다. 2010년 기준으로 F1 대회를 유치한 전체 19개 서킷 가운데 터키, 브라질, 싱가포르, 아부다비 등 단 4곳만이 반시계 방향으로 주행한다. 역방향 코스는 드라이버들에게 체력적인 부담을 안게 해 긴장감이 한층 높아져 새로운 도전이 된다.

경주장 건축물들은 건축 미학에서도 돋보인다. 영암 서킷은 F1 서킷 설계의 일인자로 불리는 독일 헤르만 틸케(52)의 작품이다. 1990년대 이후 새로 건립된 모든 F1 서킷은 모두 그의 손을 거쳤을 정도다. 틸케는 영암 서킷을 설계할 때 한국의 미를 더했다. 서킷 내 대표적 건축물인 메인 그랜드스탠드의 지붕은 한옥의 처마 선을 닮았다.

영암 F1 서킷 구간별 특성

자동차 성능 파악 가능한 3개 구간으로 구성

★총길이 5.615km 18개 코너

★ 구간별 특성

영암 서킷은 자동차의 성능을 고루 알아볼 수 있는 다양한 코너들이 배치돼 있다. F1 기준 5.615킬로미터 코스를 크게 3개 구간으로 나눠 특징을 파악해본다. 실제 F1 레이스가 펼쳐질 때도 이와 비슷한 형태의 3개 섹터(Sector)로 나눠 기록을 측정한다.

제1구간 | 엔진 성능의 극한을 시험하는 최고속도 구간

출발선과 도착선이 포함된 구간이다. 2010년 F1이 개최되는 세계 경주장 가운데 가장 긴 직선구간으로 엔진 성능을 최대한 끌어내 시속 3백20킬로미터까지 높일 수 있다.

제2구간 | 머신의 성능과 밸런스를 겨루는 고난도 구간

고속 코너와 저속 코너가 고르게 배치된 약 3킬로미터의 구간이다. 좌-우-좌로 잇따라 코너링을 해야 하므로 상당한 드라이빙 기술이 필요하다.

제3구간 | 아름다운 영암호를 향한 마리나 구간

직선구간이 짧아 가속보다는 급격히 머신의 방향을 바꿔야 하는 저속 코너와 중고속 코너가 배치돼 있다. 이 구간은 향후 도시개발을 한 뒤에는 시가지 수변 통과 코스가 된다.

반시계 방향 주행로로 드라이버·관람객 긴장감 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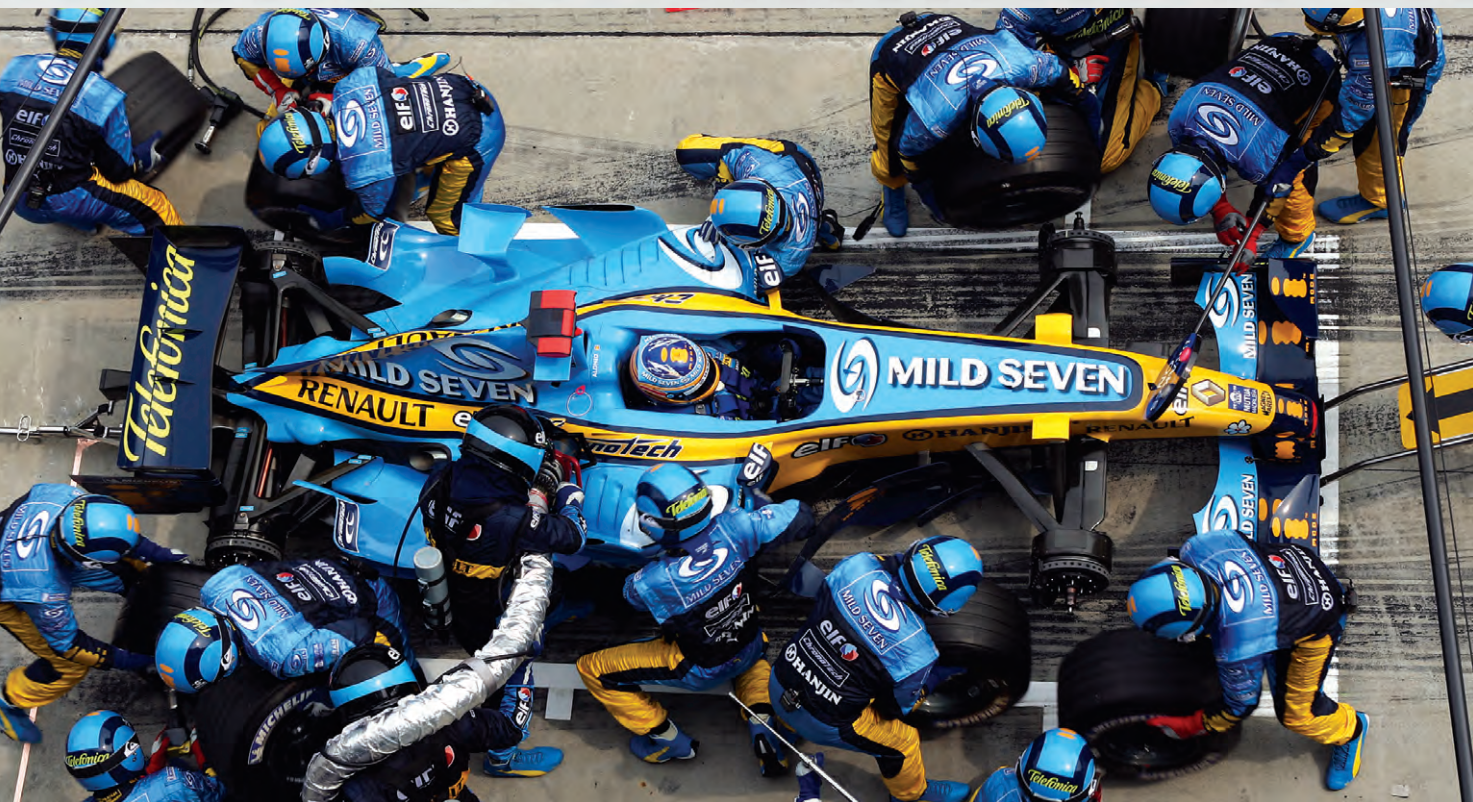
또 우리나라 전통 통신수단이던 봉수대 모양의 상징물 8개를 배치해 정보기술(IT) 강국의 이미지를 세계인들에게 알리고자 했다.

틸케는 "한국의 F1 서킷은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살려달라는 개최지 지방정부(전남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동서양 문명이 조화를 이룬 독창적 구조로 설계했다"고 말했다.

또 영암 서킷은 한 번에 12만4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 관중석에 일반 트랙과 F1 트랙에 별도로 세운 피트(Pit·서킷 안 정비소)와 패독(Paddock·트랙 안쪽 구역)의 수용 공간도 일반 F1 서킷의 2배가 넘는다.

F1 대회라는 '꿈의 레이싱'이 작은 마을 영암을 '꿈의 도시'로 만드는 청사진도 장밋빛이다. 영암 서킷의 꿈은 모나코, 인디애나폴리스 등 세계 명문 서킷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이다. 바다와 호수(영암호)를 낀 천혜의 자연환경에서 이미 영암 서킷은 독보적이다.

향후 영암 서킷에서 바다를 옆에 끼고 달리는 마리나 구간을 둘러싸고 방사형의 신도시가 건립될 예정이다. 이 계획이 실현되면 모나코 그랑프리가 열리는 몬테카를로처럼 경주차들이 시내 구간을 통과해 경주를 하게 된다. 시내에는 자동차 박물관, 모터쇼장, 스포츠 쇼핑몰 등이 들어서 3백65일 열려 있는 자동차문화의 명소가 될 전망이다. G

글 · 최은숙 기자

F1 코리아 그랑프리에서는 타이어 종류 선택과 교체 시간 전략이 중요한 변수가 된다. 사진은 타이어를 교체하는 피트 스톱 장면.

F1, 아는 만큼 보인다

F1은 '아는 만큼 보이는' 스포츠다. 전남 영암 경주장의 구조, 각 팀과 드라이버, 깃발 신호, 시간 기록 등 몇 가지 경기 규칙을 알면 이번 대회를 좀 더 흥미진진하게 관전할 수 있다.

경기 일정과 결승 출전 방식

사흘에 걸쳐 치러지는 F1 대회는 10월 22, 23일 이틀에 걸쳐 연습 주행과 예선이 펼쳐지고, 24일 오후 3시에 결승전이 치러진다.

22일 오전과 오후 각 1시간 30분씩, 토요일인 23일 오전 1시간은 연습 주행을 한다. 드라이버들은 적어도 한 번의 세션에는 참가해야 한다. 23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는 세 개 파트로 나누어진 퀄리파잉(Qualifying·예선전)이 펼쳐진다. 퀄리파잉은 결승전 그리드(Grid·결승전의 출발 순서를 표시한 트랙의 스타트 위치)를 결정하는 빅 매치다. 24대 중 1, 2세션에서 가장 느린 7대씩 탈락하며, 3세션에서는 마지막까지 남은 10명의 드라이버 중 1위로 들어온 드라이버가 폴 포지션(Pole Position·결승전 때 가장 앞자리에서 출발하는 것)을 차지한다.

랩 타임을 읽어라

F1은 기록의 게임이다. 경기장을 한 바퀴 주파하는 시간 기록인 '랩 타임(Lap Time)'은 최고의 드라이버를 가릴 수 있는 바로미터다.

예선에서 랩 타임은 보통 1바퀴당 0.1~0.5초 정도로 차이가 미미하다. 하지만 50바퀴 이상을 달리는 본선 레이스에서는 이 작은 차이가 쌓여 엄청난 간격이 벌어진다. 따라서 랩 타임은 가장 빠른 드라이버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증거다. 이 때문에 F1은 속도를 다루는 스포츠임에도 최고속도보다 랩 타임을 더 중시한다.

섹터별 타임을 살펴라

랩 타임만큼 유용한 기록 정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섹터 타임(Sector Time)'이다. 섹터란 그랑프리 서킷을 임의로 3개 정도의 구간으로 나누어놓은 것을 말한다. 각 섹터는 직선 위주의 구간이거나 혹은 코너가 많이 배치된 구간 등 각각의 특징이 있다. 레이스 참가자들의 섹터별 기록을 지켜보면 해당 구간에 유달리 강하거나 약한 드라이버의 특징이 그대로 드러난다. 이 정보를 활용하면 특정 섹터에서 추월이 벌

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어질 가능성을 예측할 수도 있다.

타이어에 주목하라

F1 레이스의 속도와 랩 타임에 큰 영향을 끼치는 요소는 타이어다. 현행 규정상 모든 참가자들은 공식 타이어 공급업체가 제공하는 두 종류의 타이어를 경기 도중 한 번 이상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F1 타이어는 접지력에 따라 슈퍼 소프트, 소프트, 미디엄, 하드 등 4가지로 나뉘며, 이 가운데 경기당 두 종류가 지정 공급된다.

예를 들어 소프트와 하드 두 종류가 쓰이는 레이스에서 현재 순위 경쟁을 벌이는 드라이버 두 명이 각기 다른 종류의 타이어를 끼우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앞선 드라이버는 소프트, 뒤따르는 드라이버는 하드 타입인 경우, 수명이 상대적으로 짧은 소프트 타입 사용자는 곧 피트 스톱(Pit Stop·연료를 보충하거나 타이어를 교체하기 위해 멈추는 것)을 해야 한다. 결국 하드 타입을 끼우고 있는 추격자에게 곧 역전의 기회가 올 수도 있다고 예측할 수 있다.

또 레이스 당일의 날씨, 서킷 노면의 온도에 따라 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는 타이어를 선택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피트 스톱이 중요한 분수령이다

올 시즌부터 중간 급유가 금지됐다. 따라서 피트 스톱 전략에도 큰 변화가 일고 있다. 우선 종전 가장 흔히 쓰이던 투 스톱 전략 대신 단 한 번만 멈춰서 의무적으로 타이어를 교체해야 하는 원 스톱 위주로 경기가 운영될 전망이다.

관전 포인트는 이 피트 스톱 시기다. 타이어의 수명이 가장 핵심적인 요소지만 의외의 변칙적인 전략으로 상대의 허를 찌르는 작전이 나올 수도 있다. 연료를 급유하지 않고 타이어 교체만 하는 피트 스톱의 가장 큰 볼거리는 역시 타이어 교체 스피드다. 2009 시즌까지는 평균 7초 이상의 피트 스톱 시간이 걸렸지만 올해부터는 단 4초대에 타이어 4개를 갈아끼우는 광속 피트 스톱 모습도 볼거리다.

나만의 팀과 드라이버를 응원하자

경기에 몰입하려면 응원 대상이 있어야 한다. 아직 F1에 출전하는 한국 드라이버나 팀이 없지만 선진국에서는 드라이버나 팀을 응원하는 팬 층이 두껍다. 예를 들어 페라리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은 F1 페라리팀을, 꽃미남 드라이버에 열광하는 여성 팬은 니코 로즈버그나 세바스티안 베텔에 열광한다. 나만의 응원 대상을 정해두고 레이스를 지켜보면 훨씬 짜릿한 관전이 될 수 있다. G

정리 · 최은숙 기자

F1 경기장에서 깃발은 이런 뜻

Green(녹색기)
포메이션 랩(결승 레이스에서 정식으로 스타트하기 전 경주차들이 한 바퀴 도는 것)의 출발을 알리거나, 레이스 중 트랙에 위험상황이 없어졌으니 마음껏 달려도 된다는 신호다.

Blue(청색기)
뒤에 추월하려는 더 빠른 경주차가 있다는 걸 알려주는 깃발. 보통 선두권에 한 바퀴 이상 뒤진 하위차에게 신호를 보낸다.

Black(흑색기)
페널티를 받은 드라이버에게 보내는 신호로, 흑색기를 본 드라이버는 3바퀴 이내에 피트(서킷 내 정비소)로 들어와야 한다.

White(백색기)
트랙에 경주를 포기한 차가 있거나 구조용 앰뷸런스, 견인차 등이 투입돼 있으니 주의하라는 신호다. 지나는 차량은 조심하며 속도를 줄여야 한다.

Red(적색기)
사고나 악천후로 더 이상 경기를 진행할 수 없어 레이스가 중단됐다는 의미다. 트랙에 있는 모든 드라이버들은 적색기 라인에 멈춰서서 다음 지시를 기다려야 한다.

Yellow(황색기)
트랙에 사고가 났음을 알리는 깃발로, 속도를 늦춰야 하고 추월을 할 수 없다. 황색기 두 개를 흔들면 아주 위험하다는 신호로 반드시 속도를 늦춰 멈춰야 한다.

Oil(오일기)
노면에 오일이 흘러 있어 미끄럽다는 신호. 레이스에서는 고장난 앞차가 흘린 오일이 큰 사고의 원인이 되므로 각별히 조심하라는 신호다.

B/W(흑백반기)
비신사적 행동을 한 드라이버에게 보내는 경고 깃발. 깃발과 함께 비신사적 행동을 한 드라이버의 차량 번호를 게시한다.

B/Y(오렌지볼기)
더 이상 레이스를 할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된 경주차에 엔트리 넘버와 함께 보내는 신호.

Checker(체커기)
모든 랩을 마치고 경기가 종료됐음을 알리는 신호. 가장 먼저 체커기를 받은 드라이버가 그날의 우승자다.

'전설' 슈마허 귀환
챔피언은 누가 될까?

슈마허 현재 9위… '1위 기록' 마크 웨버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세계 최고의 드라이버 24명이 출전하는 F1 코리아 그랑프리. 국내에도 잘 알려진 미하엘 슈마허(메르세데스GP)가 참가하는 가운데 레드불레이싱 소속의 마크 웨버와 세바스티안 베텔, 페르난도 알론소(페라리)가 유력한 챔피언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올해 19차례의 경주 중 17번째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세계 챔피언 결정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미하엘 슈마허 선수는 F1 역사상 7회 우승의 대기록을 세운 F1 최고의 스타다. 현재 순위는 9위로 올해 성적은 그리 좋지 않은 편이다.

AP

F1은 자동차의 성능을 바탕으로 치러지는 경주인 만큼, 팀마다 수십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경주차가 최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인다. 하지만 팀에서 어느 누구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가장 주목받는 사람은 역시 경주차를 모는 선수(드라이버)들이다.

F1에 출전하는 선수들은 이미 실력을 검증받은 최고 수준의 드라이버들이다. 따라서 승부는 드라이버 개개인의 실력 차이 외에도 경주차의 성능, 팀의 경주 전략, 서킷(경주장), 드라이버 사이의 궁합은 물론 날씨 같은 '운(運)'이 필요한 요소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이처럼 복잡한 여건 속에서 최고의 실력을 발휘해 한 시즌 동안 가장 많은 우승을 차지하는 드라이버가 챔피언컵을 거머쥘 수 있다.

올 16차례 경기 중 4번의 우승 차지한 웨버

올해 시즌에 출전 중인 팀은 모두 12개. 각 팀마다 2명의 드라이버가 출전하기 때문에 하나뿐인 시즌 챔피언 자리를 놓고 모두 24명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셈이다. 또한 각 드라이버들의 성적을 합산해 팀 챔피언을 가리기 때문에 이들은 개개인의 우승뿐 아니라 팀의 우승을 위해서 달리고 있다.

올 한 해 동안 정해진 19차례의 경주 가운데 17번째로 열리는 코리아 그랑프리를 앞둔 성적을 종합해보면, 레드불레이싱 소속의 마크 웨버(호주)와 세바스티안 베텔(독일), 그리고 페라리 소속의 페르난도 알론소(스페인) 3명이 올 시즌 유력한 챔피언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10월 10일 열린 일본 그랑프리까지의 순위는 웨버가 2백20점으로 1위를 달리고 있고, 2백6점을 얻은 알론소와 베텔이 그 뒤를 바짝 쫓고 있다.

매 경기 1위에게 25점,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18, 15, 12, 10, 8, 6, 4, 2, 1점이 주어져 한 시즌 동안 얻은 점수를 합산해 챔피언을 가리는 F1 규정을 감안하면, 두 차례의 경기만 남기게 되는 이번 코리아 그랑프리가 챔피언을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듯하다.

올해 F1 대회의 챔피언 후보들. 지난해 챔피언인 젠슨 버튼(왼쪽)은 현재 5위에 올라 있다. 1위를 달리고 있는 마크 웨버(가운데), 2위인 페르난도 알론소(오른쪽).

여러 선수들 가운데 올해 가장 관심을 모으는 이는 역시 레드불레이싱의 듀오인 웨버와 베텔이다. 올해로 F1에 9년째 출전하고 있는 웨버는 그동안 돋보이는 성적을 거두지 못했지만 지난해부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고, 올해 초반만 해도 중상위권에 머무르다가 중반 이후 상승세를 타며 가장 유력한 챔피언 후보로 올라섰다. 지금까지 열린 16차례의 경기 중 네 번의 우승이 그에게 돌아갔다.

같은 팀 소속인 베텔도 웨버와 함께 뛰어난 실력을 발휘하며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데뷔 3년차로 아직 성장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되는 베텔은 1987년생으로, 짧은 경험과 젊은 혈기로 종종 침착함과 집중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지만 타고난 실력이 돋보인다. 장난기 어린 귀여운 모습으로 여성 팬들에게도 인기가 높다.

특히 베텔은 올 시즌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뒷심을 발휘하고 있어 앞으로의 결과가 기대된다. 웨버와 베텔의 선전에 힘입어 레드불레이싱팀은 창단 이후 처음으로 컨스트럭터 챔피언이 유력시되고 있다.

페라리 주전 드라이버 알론소 … 시즌 중반 2회 연속 우승

올해 페라리팀의 주전 드라이버로 출전 중인 알론소 역시 팬 층이 두꺼운 실력파로, 지난해 팀의 부진을 씻기 위해 페라리가 야심차게 영입한 인물이다. 중반전까지는 상위권에 거의 오르지 못해 챔피언이 될 가능성이 비교적 낮았지만 시즌 중반에 2회 연속 우승하면서 빠르게 시즌 우승권에 진입했다.

알론소는 올 시즌 1백92점을 얻어 4위를 달리고 있는 맥라렌메르세데스팀의 루이스 해밀턴(영국)과 곧잘 비교되곤 한다. 알론소는 2005년에 24세 나이로 챔피언에 올라 역대 최연소 F1 챔피언 기록을 세웠지만, 이 기록은 2008년에 23세로 챔피언에 오른 해밀턴에 의해 깨졌다.

해밀턴은 사상 최초의 흑인 F1 드라이버이자 챔피언으로도 화제가 된 바 있다. 그는 간혹 위험하다 싶을 정도로 공격적이고 과감한 운전 스타일을 보이는데, 지난 경기 동안 순위 기복이 심했던 것도 이런 해밀턴의 운전 스타일이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올 시즌에 알론소와 해밀턴은 각각 세 차례씩 우승을 차지했다.

한편 지난해 챔피언인 젠슨 버튼(영국)은 1백89점으로 현재 5위에 올라 있다. 1999년 경남 창원에서 열린 F3 경주에 참가해 2위를 차지하며 우리나라에도 어느 정도 이름이 알려진 그는 뛰어난 재능과 탄탄한 실력을 고루 갖춘 선수로 평가받고 있지만 지난해 챔피언에 오르기까지 F1에서는 뛰어난 성적을 거두지 못했다. 올해에는 우승을 두 번 차지했지만 다른 상위권 드라이버들에 가려 빛을 보지 못해 팬들의 아쉬움을 자아내고 있다.

현재 순위 9위(54점)로 올해 성적은 그리 좋지 않지만, 인지도 면에서 세계 최고의 드라이버는 단연 메르세데스GP팀의 미하엘 슈마허다. 그는 1994년과 1995년,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챔피언에 올라 F1 역사상 가장 많은 7회 우승의 대기록을 세운 주인공이자 F1이 낳은 최고 스타다.

그는 2004년 경제지 〈포브스〉가 집계한 운동선수 수입 순위에서 연간 수입 8천만 달러로 비슷한 액수를 벌어들인 타이거 우즈의 뒤를 이어 2위에 오를 만큼 성공적인 경력을 쌓았다. 2006년 시즌이 끝나고 은퇴한 그는 메르세데스-벤츠가 F1 팀을 꾸리면서 3년 만에 F1에 복귀했다. 덕분에 41세의 나이로 현재 F1에 출전 중인 최고령 드라이버라는 새로운 기록도 세우고 있다.

이들이 펼치는 세계 최고 수준의 모터스포츠 축제를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행운이다. G

글 · 류청희(자동차평론가)

시속 350km '괴물'들이 몰려왔다

최고출력 800마력… 눈 깜짝할 새 '씽'

**F1은 자동차공학의 정점에 서 있다.
자동차의 최첨단 기술력이 모두 F1에서 만들어지고
그 기술을 바탕으로 슈퍼카가 탄생한다.
F1 기술이 곧 슈퍼카의 기술이다.**

F1 머신은 경주용 차로 제작돼 일반 차와는 다르다. 영국의 스포츠카 전문 제작사인 맥라렌이 올해 새롭게 출시한 F1 머신 'MP4-25'.

F1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끄는 이유는 빠른 속도에 있다. 최고시속 3백50킬로미터에 육박하는 F1 머신(경주차)의 속도는 모든 모터스포츠 중 가장 빠르다. 속도뿐 아니라 머신의 역동적인 움직임, 신기에 가까운 드라이버의 스킬, 고막을 찢을 듯한 배기음 등이 F1의 매력이다.

이렇듯 세계인을 열광시키는 F1 머신은 일반 차와 많이 다르다. 바퀴가 차체 밖으로 나와 있는 오픈 휠 형태이면서 지붕이 없다. 이런 구조는 운전자의 안전성이 낮아 각국의 도로교통법에 맞지 않아 일반 도로를 달릴 수는 없다.

F1 머신이 이러한 구조를 하고 있는 이유는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다. 빠르게 달리는 것에 집중했기 때문에 불필요한 요소들은 없애면서 이런 모습이 됐다. 차체도 철이 아닌 탄소와 카본 등 가벼운 재질로 만든다. 그래서 F1 머신은 무게가 단 6백20킬로그램밖에 되지 않는다. 가격 면에서도 상상을 초월한다. F1 머신 한 대 당 가격은 약 1백억원. F1 대회 땐 12개팀 2대씩, 총 2천4백억원의 머신들이 서킷에 상주한다.

맞바람으로 차가 뜨지 못하도록 공기역학 기술 사용

차체는 최고출력 7백50~8백 마력에 이르는 8기통의 2.4리터 엔진이 움직인다. 같은 배기량의 현대 쏘나타 2.4의 최

F1 코리아 그랑프리 참가팀 중 우승 후보로 알려진 레드불레이싱팀은 위력적인 엔진을 장착한 레드불 머신으로 창단 후 첫 우승에 도전한다.

차의 문이 새의 날개처럼 열리는 메르세데스-벤츠 최신형 슈퍼카인 'SLS AMG'. 제로백 3.8초, 최고속력 시속 3백17킬로미터를 자랑한다.

한국의 수제 스포츠카 '스피라'

우리나라에는 아직 F1 팀이 없지만 슈퍼카 영역에 근접한 수제 스포츠카 스피라가 있다. 어울림모터스가 만든 이 차는 최고출력 5백마력, 최고시속 3백15킬로미터에 이르는 뛰어난 성능을 낸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백 킬로미터에 이르는 시간(제로백)이 3.5초로 유럽산 슈퍼카들과 견줘 뒤지지 않는 가속력을 지녔다.

또 차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성능을 떨어뜨리는 전자장비도 많지 않아 순수하게 달리는 즐거움을 준다. 엔진과 변속기 등 주요 부속은 자체 생산하지 못해 수입하고 있지만 이러한 차를 생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국내 시장에서는 큰 성과로 꼽히고 있다. 차의 성능과 가격 대비 가치도 높게 평가받고 있어 네덜란드 등지로의 수출 계약도 체결한 상태다.

고출력이 1백78마력인 것을 감안하면 출력이 4, 5배에 이른다는 걸 알 수 있다. 배기량이 낮음에도 높은 출력을 내는 것은 엔진이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이다. 일반 자동차는 1분에 3천~4천 번 정도 엔진이 회전하지만 F1 머신은 1만8천 번 회전한다. 이는 1초에 3백 번 정도 엔진이 움직이는 셈이다.

무게는 극도로 가볍고 엔진의 출력은 엄청나게 높으니 머신이 빠른 것은 당연한 결과다. 보통 F1 머신의 최고시속은 3백50킬로미터에 이른다. 이는 비행기가 이륙할 때의 속도와 비슷하다. 이 때문에 머신도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F1에는 철저한 에어로다이내믹(공기역학) 기술이 들어간다.

이 기술은 쉽게 말해 맞바람을 타고 차가 떠오르지 못하도록 차체를 눌러주는 것이다. 빠른 속도에서 차체가 떠오르면 타이어 접지력이 떨어져 속도가 줄고 컨트롤도 어려워진다. 심할 경우에는 머신 전체가 공중으로 떠오르기도 한다. 실례로 지난 6월 열린 유럽 그랑프리에서 레드불레이싱팀 마크 웨버의 머신은 시속 2백 킬로미터가 넘는 속도에서 다른 머신과 충돌하면서 차체가 15미터 높이까지 떠올랐다.

일반인 위한 주행패턴·편의성·안락성 더한 '슈퍼카'

이를 방지하기 위해 F1 머신에는 아주 복잡한 에어로다이내믹 기술이 사용된다. 머신 앞에는 프런트 윙과 디퓨저(공기를 가르는 패널)가 자리하고 차체도 유선형으로 만든다. 뒤에도 거대한 리어 윙을 달아 에어로다이내믹 성능을 높인다. 앞뒤에 달린 윙만으로 1톤이 훌쩍 넘는 다운포스(차체를 누르는 힘)가 생긴다.

이처럼 F1 머신은 가장 진보된 자동차 엔지니어링과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유로 F1 머신의 기술이 일반 차에도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오래전부터 F1에서 활약하고 있는 페라리는 그들의 슈퍼카 제작에 변속기와 에어로다이내믹, 엔진 엔지니어링 등 F1 기술을 계속 접목하고 있다. 맥라렌팀도 그들의 F1 기술력을 바탕으로 슈퍼카 MP4-12를 만들었고, 메르세데스-벤츠의 슈퍼카 SLS AMG도 메르세데스GP의 F1 기술이 들어간 결과물이다.

슈퍼카와 F1 머신이 많은 부분에서 기술력을 공유하고는 있지만 두 차는 전혀 다르다. F1 머신은 철저히 경주를 위해 제작됐고, 슈퍼카는 일반인에게 판매하기 위해 만든 차다. 따라서 모습이나 주행패턴, 편의성과 안락성 측면 등에서는 완전히 다르다.

슈퍼카에는 수많은 편의 및 안전장비들이 더해진다. 차체가 F1 머신보다 훨씬 무겁다. 엔진도 F1 머신보다 큰 것을 사용한다. F1 머신이 배기량은 낮으면서 높은 출력을 내는 이유는 빠르게 움직이는 엔진 때문이다. F1 팀은 1년에 최대 8개의 엔진을 사용한다. 일반적인 슈퍼카에는 5.0~8.0리터의 큰 배기량 엔진이 사용된다. 물론 F1 머신의 엔진보다 느리게 움직인다. G

글 · 이진우(자동차 칼럼니스트)

'최고 명당'을 찾아라

메인 그랜드스탠드·마니아 존·코너링 존 등 관람석별로 특징

F1의 감동을 제대로 느끼려면 서킷에서 펼쳐지는 레이스를 즐겨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열리는 이번 F1 대회는 F1의 매력을 한껏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전남 영암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을 즐기기 위한 필수조건, F1 관람 방법을 살폈다.

F1 코리아 그랑프리의 관람석은 총 12만4천석. 지난 3월 31일 티켓을 공개한 이후 F1 코리아 그랑프리 공식 홈페이지와 인터넷 쇼핑몰 등 온라인, 신한은행과 광주은행 등 오프라인에서 티켓이 판매되고 있다.

입장권은 관람석 가격과 위치에 따라 9등급, 20종으로 나뉜다. 크게는 10월 22일 연습 주행, 23일 예선, 24일 결선 등 사흘간 모든 경기를 볼 수 있는 전일권과 예선 입장권, 결선 입장권으로 분류된다.

세계적 규모의 대회인 만큼 입장권 가격은 역대 국내 개최 스포츠 대회 중 최고가다. 특히 머신 주행 장면이 보이는 위치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크다.

고가의 좌석으로 알려진 곳은 F1 머신의 출발과 결승선 통과 장면 등을 볼 수 있는 메인 그랜드스탠드 골드석. 전일권 가격이 1백1만2천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가장 비싸다. 반면 가장 저렴한 좌석은 그랜드스탠드 I, J석 예선 입장권으로 12만8천7백원이다.

지난 8월 9일부터 지정좌석 시스템을 도입해 관람구역은 물론 개별 좌석까지 관람객이 선택할 수 있다. 지정좌석제를 실시하기 이전 블록제로 입장권을 미리 구매한 고객에게도 좌석 선택권을 준다.

현재 모든 입장권은 대회 개최 전까지 7퍼센트 특별 할인 중이다. 아직 관람 예매를 주저하고 있는 F1 입문자들을 위해 서킷을 중심으로 배치된 관람석들을 특징별로 소개한다. G

글 · 김민지 기자

2010 F1 코리아 그랑프리 www.koreangp.kr
인터파크 www.interpark.com
티켓링크 www.ticketlink.com

저렴한 가격으로 F1 볼거리 누리는 H I J

I, J구역은 비교적 저렴한 가격대로 F1 대회 초보자들이 주로 찾는 좌석이다. 서킷 서편에 위치한 대규모 관람 공간으로 경주 시간에 따라 노을빛을 받으며 달리는 머신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을 수 있다. 트랙 구조상 11~13번 중속 코너 배치 지점으로 변속 타이밍의 복잡한 엔진음을 들을 수 있다. H구역은 I, J구역보다 두 번째로 저렴하다. 최고 추월 포인트로 꼽히는 3번 코너를 볼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F1 제대로 보고 싶다면 _ 메인 그랜드스탠드 골드&실버

경주의 출발과 결승선 통과 장면, 타이어 교체 장면 등을 눈앞에서 확인할 수 있는 최고의 좌석이다. 따라서 높은 가격대에도 불구하고 F1 마니아들 사이에선 구매 열기가 뜨겁다. 1백만원대의 전일권 가격은 비싸지만 아시아 F1 개최 5개국의 최고등급 좌석 평균가 1백3만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메인 그랜드스탠드는 상·하단 위치에 따라 골드와 실버구역으로 나뉜다. 메인 그랜드스탠드 3층은 골드구역으로 시야를 막는 방해물 없이 경기를 볼 수 있고, 2층은 실버구역으로 서킷 앞에서 펼쳐지는 생생한 광경을 목격하기엔 최적의 장소다. 골드구역의 가격이 높은 것은 좀 더 높은 층이 경기 전체 흐름이나 선수들의 움직임을 파악하기 좋아서다. 또 경주 이외의 부대행사도 이 앞에서 펼쳐진다.

F1 레이싱 특유의 코너링 보고 싶다면 E F G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의 명물 가운데 하나인 북단 고속 코너 앞에 위치했다. 7~9번 코너가 연속으로 배치된 이 구역에서는 하이 스피드 코너링의 묘미를 지켜볼 수 있다. 드라이버의 기량이 드러나는 구역인 만큼 세계적인 스타들의 주행능력을 지켜볼 수 있다.

F1 마니아들만 아는 '마니아 존' A B D

메인 그랜드스탠드 구역과 비슷한 조망권을 갖는 C구역 다음으로 비싸다. 그러나 머신을 자세히 볼 수 있어 F1 마니아들이 즐겨 찾는다. A구역은 머신이 최고속도를 내는 직선주로 끝에 위치해 곧바로 이어지는 코너를 돌아나가기 위해 감속하는 곳. 통과 속도가 느려 머신의 전면, 측면, 후면을 자세히 볼 수 있다. B지역은 가속하면서 내뿜는 머플러의 배기음을 즐길 수 있으며 D지역은 머신이 결승점을 통과하기 전 마지막 가속구간으로 치열한 접전을 목격할 수 있다.

F E D C M

메인 그랜드스탠드 다음으로 잘 보이는 곳 C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 북쪽 끝에 위치한다. 메인 그랜드스탠드에 이어 좌석에서 트랙이 가장 가깝다는 점이 장점이다. 좌석 바로 아래 피트에서 F1 머신 이외의 경주차들이 머물고 있어 갖가지 볼거리들이 넘친다. 좌석 설치 지점이 높아서 맞은편 트랙의 상황까지 관람 가능하다.

F1 2010 KOREAN GRAND PRIX
Formula 1

핵심 관람구역으로 꼽히는 K L M

출발선, 피트 출구, 최장 직선주로 지점에 신설된 K, L, M 관람석은 가격 대비 좋은 자리로 알려졌다. K구역은 특히 가장 비싼 좌석인 메인 그랜드스탠드 바로 옆에 별도로 마련돼 있어 경주 출발 직후 첫 번째 코너에서 벌어지는 F1 머신들의 자리다툼을 근접한 거리에서 볼 수 있다. M구역의 경우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의 자랑 중 하나인 1.2킬로미터 직선구간 끝부분에 배치돼 F1 머신의 빠른 속도를 즐길 수 있다.

일러스트 · 최정미

도착점
시작점
K B L A

메인 그랜드스탠드 **골드**
메인 그랜드스탠드 **실버**

F1 대회 조직위원장 맡은 박준영 전남지사

"전남 발전의 시동이 걸렸습니다"

"드디어 '아껴둔 땅' 전라남도 발전의 시동이 걸렸습니다!"

10월 12일 오후 2시쯤. 전남 영암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이하 영암 서킷)이 국제자동차연맹(FIA)으로부터 국제 레이싱 트랙의 최고 등급인 '그레이드 A'를 받고 최종 승인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은 박준영(64) 전남지사는 쾌재를 불렀다. 승인 판정은 영암 서킷이 F1 대회를 치를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는 의미로, F1 대회 조직위원회 조직위원장인 박 지사가 오매불망 기다리던 희소식이다.

F1 대회 조직위원장인 박준영 전남지사는 영암 F1대회가 전남의 백년대계가 걸린 'J프로젝트' 성공의 교두보이자 국가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다.

"지난여름 유난히 비가 많이 내리는 바람에 영암 서킷 공사가 예정보다 늦어져 조마조마했는데, 무사히 합격 통지를 받으니 날아갈 듯합니다. 올림픽, 월드컵에 이어 3대 국제 스포츠행사로 꼽히는 F1 대회를 상대적으로 낙후된 영암에서 개최하게 된 것은 전남도의 발전과 국익 모두에 큰 도움이 되는 커다란 경사입니다."

박 지사는 대회 유치에서부터 경주장 완공까지 4년여 동안 F1 대회에 공을 들였다. F1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것은 곧 전남도가 백년대계를 준비하며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서남해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사업(J프로젝트) 성공의 신호탄이기 때문이다. J프로젝트는 2006년부터 2025년까지 전남도와 민간이 도시 조성비 약 2조2천8백억원 등을 투자해 영암군 삼호읍과 해남군 산이면 일대(약 49제곱킬로미터)에 관광스포츠레저도시를 조성하는 대형 사업이다.

F1 개최는 관광스포츠레저도시 성공의 신호탄

"남한 해안선의 절반을 차지하는 긴 해안선과 아름다운 갯벌 등은 전남의 천혜 관광자원이자 외국 관광객들을 대거 유치할 수 있는 국가적 자산입니다. F1 대회는 세계 6억명이 지켜보는 국제적 행사인 만큼 대한민국과 전남의 브랜드를 세계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F1 대회를 비롯해 J프로젝트를 통해 유치할 '굴뚝 없는 산업'인 관광서비스업이야말로 발전 가능성과 일자리 창출효과가 크다고 박 지사는 낙관한다. 실제로 올해부터 2016년까지 7년간 영암 경주장 건설과 F1 대회 개최를 통해 1만7천9백94명의 고용을 창출한다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추산했다.

박 지사는 F1 대회 개막을 앞두고 손님 맞을 막바지 준비를 하면서 F1 대회 이후까지 꼼꼼히 챙기고 있다.

"매년 안정적으로 국내외 모터스포츠 경기를 개최하기 위해 투자자를 유치하고, 경주장과 연계한 무안공항과 근접 지역 간 직통도로 등 인프라를 보완할 계획입니다. 영암이 국제적인 모터스포츠 도시로 발돋움할 때까지 정부와 온 국민이 열정을 갖고 성원해주십시오." G

글 · 최은숙 기자

F1 코리아 그랑프리 홍보대사 류시원

"자동차 경주의 색다른 매력 느껴보세요"

"개인적으로 F1과 모터스포츠를 삶의 일부로 생각할 만큼 많은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선진적인 레이싱문화가 국내외 대중에게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교두보 역할을 해내고 싶습니다."

한류스타 류시원이 F1 코리아 그랑프리의 흥행을 위해 나섰다. F1 코리아 그랑프리 대회 운영법인인 KAVO(Korea Auto Valley Operation)와 F1 조직위원회는 지난 3월 카레이싱팀 'EXR 팀106'의 감독 겸 주전 드라이버로 활약 중인 그를 F1 코리아 그랑프리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류시원은 1996년 연예인 최초로 카레이싱 면허를 땄다. 이듬해인 1997년부터는 모터스포츠 선수로 활동해왔으며 2003년 8월에는 국제 카레이싱 면허까지 취득했다. 또 지난해 5월에는 EXR 팀106을 창설할 정도로 모터스포츠에 각별한 애정을 쏟아왔다. 이처럼 국내 모터스포츠 저변 확대에 앞장선 공을 인정받아 '2009 CJ O 슈퍼레이스 어워드'에서 공로상을 받기도 했다.

team106

한류스타이다 보니 그가 레이스를 펼치는 경기에는 서킷에 해외에서 날아온 팬들이 북적인다. KAVO와 F1 조직위원회는 이번 대회에서도 한류 팬을 몰고다니는 '류시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언젠가 F1 서킷을 달려보는 것이 꿈이라는 그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열리는 역사적인 대회이니 많은 분들이 보러 오셨으면 좋겠다"며 "직접 보면 자동차 경주의 색다른 매력을 오감으로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G

전라남도 홍보대사 이세창

"F1, 월드컵 · 올림픽보다 높은 부가가치 창출"

"F1 코리아 그랑프리는 월드컵이나 올림픽보다 높은 부가가치를 낳고, 전라남도와 자동차산업 발전에도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전남 영암에 지어진 F1 경주장은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꿈의 서킷인 만큼 미국의 자동차 문화를 이끌고 있는 디트로이트 시민들이 갖는 자부심을 전남도민과 자동차 마니아들에게도 심어주게 될 겁니다."

경력 13년차 카레이서이자 전라남도 홍보대사인 탤런트 이세창은 F1 코리아 그랑프리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껏 상기돼 있다. 카이레싱팀 '알스타즈'의 감독 겸 대표이기도 한 그는 이번 대회가 모터스포츠 저변 확대와 자동차문화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연아 선수를 통해 우리가 피겨스케이팅을 알게 됐듯이 이번 대회를 통해 선진 모터스포츠와 자동차문화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전라남도가 F1을 통해 자동차문화를 선도하는 지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영철 기자

이세창은 F1을 위험한 스포츠로만 보는 시선을 안타까워했다. F1은 최고시속 3백50킬로미터의 극한에 도전하는 경기지만 "안전에 철두철미하게 대비하기에 다른 어떤 스포츠보다도 부상이나 사망사고가 적다"는 것.

"카레이싱이라는 스포츠가 없다면 세계적인 자동차회사들이 F1 우승을 목표로 수천억원의 거금을 더 안전하고 효율 좋은 엔진 개발에 투자할 이유가 없을 겁니다. 이번 대회를 계기로 카레이싱에 대한 오해가 풀리기를 바랍니다." G

글 · 김지영 기자

화려한 폭풍질주… 박진감 넘치는 대결…

스타 연예인들, 자동차 경주 매력에 풍덩~

모터스포츠는 박진감 넘치는 속도의 대결이 짜릿한 흥분과 스릴을 자아낸다. 최첨단 자동차 기술의 경연이 펼쳐지는 카레이싱은 아직 우리나라에서 대중적인 스포츠라 하기 어렵지만 유명인들 중에는 이 매력에 흠뻑 빠진 이들이 적지 않다.

조영철 기자

우리나라에 모터스포츠가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연예인들이 카레이싱을 즐기면서부터다. 대표적인 카레이싱 마니아인 탤런트 이세창은 아예 레이싱팀을 꾸려 주변 연예인들에게 카레이싱의 매력을 전했다.

그가 만든 알스타즈팀 소속 선수로는 부인 김지연 씨, 탤런트 김준희, 안재모 등이 있다. 9년 경력의 안재모는 2006년 시즌에 당시 팀 동료였던 탤런트 류시원과 투어링 A클래스에 동반 출전해 류시원이 시리즈 챔피언을 차지하는 데 결정적인 공헌을 하며 종합 3위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가수 김진표는 올해 국내 명문 프로자동차경주팀인 GM대우레이싱팀에 전격 합류했다. 2006년 알스타즈팀을 통해 카레이싱에 입문한 그는 2008년에 슈퍼 1600 클래스에서 시즌 3승을 올리고 데뷔 3년 만에 생애 첫 챔피언에 올라 카레이서로서 당당히 이름을 날렸다. 김진표는 레이싱 입문 후에는 연예계 활동보다 레이싱에 더 비중을 둘 정도로 카레이싱에 강한 열정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세대 연예인 카레이서인 이세창과 류시원에 버금가는 기대주는 탤런트 연정훈이다. 평소 자동차 마니아로 소문난 그

GM대우

1 국내 단 두 명뿐인 여성 프로 카레이서 중 한 명인 이화선.
2 탤런트 연정훈은 올해 카레이싱에 입문했지만 초보답지 않은 실력을 뽐내고 있다.
3 개그맨 한민관은 약골 이미지와 달리 남성미 넘치는 카레이서로 활약 중이다.
4 카레이싱 활동에 빠져있는 가수 김진표.

시케인

레드앤스피드

는 올해 국내 명문 레이싱팀인 시케인을 통해 카레이서로 본격 데뷔했다.

지난 7월 일본에서 열린 슈퍼클래스 스톡카 경기에 첫 도전장을 낸 연정훈은 완주만 해도 높게 평가받을 첫 출전에서 기록을 경신해 타고난 레이싱 감각을 증명했다. 지난 9월 열린 2010 CJ 티빙닷컴 슈퍼레이스 챔피언십에서는 류시원을 앞서며 5위를 차지해 주위를 놀라게 했다.

그런가 하면 의외의 카레이싱 선수도 있다. 약골 이미지로 인기를 모은 개그맨 한민관은 실제로는 뛰어난 운동신경을 가진 카레이싱 선수다. 1백미터 달리기 12초 기록을 가지고 있으며 탁구, 배드민턴 등 운동에 탁월한 소질을 갖고 있는 그는 레드앤스피드팀 소속으로 출전한 2010 코리아GT 그랑프리 6전 GT마스터스-엘리사 클래스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발군의 실력을 발휘했다.

슈퍼모델 출신 이화선, 자동차 경주에서 2위 경험

여성 연예인 카레이서로는 슈퍼모델 출신 이화선이 단연 돋보인다. 이화선은 소속팀(KT돔)에서 연봉을 받고 있는 국내 2명뿐인 여성 프로 카레이서 중 한 명이다. 2004년 이세창의 초대로 경기장에 놀러갔다가 카레이서 인생을 시작했다. 남녀 선수 구분이 없는 자동차 경주에서 남자 선수들을 제치고 2위를 차지한 경험도 있다.

서태지와 아이들 멤버인 가수 이주노도 8백 마력의 고성능 레이싱카로 카레이싱 대회에 출전한 선수다. 또 다른 연예인 레이싱팀인 고스트팀에는 이주노 외에도 개그맨 안상태, 아나운서 김철민, 가수 장우혁(전 H.O.T 멤버) 등이 소속돼 맹활약을 펼치고 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도 프로급 카레이서다. 지난해 4월 경기 용인시의 에버랜드 자동차경주장 스피드웨이에서 직접 자동차 레이싱을 즐기는 모습이 언론에 노출되기도 했다. 이때 이 회장이 직접 운전한 차량은 포르셰 911터보, 람보르기니의 가야도르 등 고급 스포츠카여서 그의 자동차 수집 취미도 엿볼 수 있었다. G

글 · 오진영 객원기자

자원봉사 영암으로… 영암으로 ‘고고씽’

통역·관람객 안내 등 5개 분야 550여 명 활동

**F1 코리아 그랑프리에는 우리 국민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관람객들이 찾을 예정이다.
이들의 손과 발이 되고 F1 대회 성공 개최의 견인차가 될 자원봉사자들이 전남 영암으로 몰려들고 있다.**

F1 코리아 그랑프리의 방문객 수는 12만여 명으로 예상된다. F1 대회 조직위원회는 국제적인 이번 행사를 찾는 관람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진행을 돕기 위해 지난 3월 F1 코리아 그랑프리 자원봉사자를 모집했다.

F1 대회에 대한 관심은 전국적으로 뜨거웠다. 지원자 2천3백13명 중에는 전남지역 외에도 서울, 경기 등 타 지역 거주자가 많았다. 이 중 통역, 관람객 안내, 대회 운영, 공공부스 관리, 교통 지원 업무 등 5개 분야에서 활동할 자원봉사자 5백50

일러스트 · 이우정

mcst.go.kr KOR 문화체육관광부

여 명이 선발됐다. 이들은 그동안 온라인을 통해 F1 대회에 대한 설명 및 자원봉사 관련 기본 소양교육을 받았다.

국내에서 처음 열리는 F1 대회인 만큼 '나눔'의 소중함을 알릴 자원봉사자들의 면면은 다양하다. 무엇보다 다양한 연령대의 자원봉사자들이 눈에 띈다.

최연소 자원봉사자는 장현석(9 · 전남 무안군 남악초등학교) 군, 최고령자는 박정화(85) 씨다. 현석 군은 평소 아버지에게서 자원봉사의 중요성을 자주 들어왔다. 그러다 이번에 F1 대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아버지와 상의해 자원봉사자로 지원하게 됐다.

장현석 군은 "좋아하는 자동차 경주도 볼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도 만날 수 있어 기대가 된다"며 "열심히 F1 대회 관람 안내를 돕겠다"고 말했다.

전남 목포시에서 보험영업 대리점을 운영하는 박정화 씨는 "죽기 전에 고향 영암을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라고 생각했다"며 자원봉사 지원 계기를 밝혔다.

1926년생인 박 씨는 일제강점기에 해군으로 복무하며 일본어를 배웠다. 지금까지도 일본어 소설책을 즐겨 읽는 등 일어 실력을 갈고닦았다. 일어 통역 자원봉사자로 뽑히면서 이제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됐다.

박 씨는 요즘 틈만 나면 인터넷으로 F1과 관련된 자료를 찾아 공부하고 있다. F1 대회 자원봉사자로서 누구보다 F1에 대해 많이 알아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그는 "자원봉사자 중 최고령이지만 건강은 잘 관리해왔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이번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면 향후 7년간 개최되는 F1 코리아 그랑프리의 자원봉사자로 우선 선발될 수 있다고 하니 건강만 허락한다면 앞으로도 계속 F1 대회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고 싶다"고 했다.

외국인 봉사자 10명 "한국의 다양한 문화 알리고 싶다"

젊고 씩씩한 20대 대학생들은 이번 F1 대회 자원봉사자 중 가장 많이 참여했다. 통역 부문에 지원한 김영현(24 · 서강대 영문학과) 씨는 카레이싱 마니아로 이번 대회에 대한 기대가 크다. 미국에서 청소년기를 보낸 그는 차에 대한 관심이 어릴 적부터 남달랐다고 한다. 한국에 와서도 자동차 경주를 즐겨 보고 가끔 참여하기도 했다.

현장에서 봉사하며 F1과 관련된 생생한 정보들을 마주할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그에게 우리나라의 F1 대회 개최는 꿈같은 일이다. 앞으로 자동차 부품 관련 사업을 하고 싶다는 그는 "한국에선 아직 F1에 대해 잘 모르지만 이번 대회를 통해 카레이싱의 매력에 많은 사람들이 빠져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자동차 관련 공부를 하면서 자동차와 F1 머신을 좋아하게 됐다는 김보명(25 · 숭실대 기계공학과) 씨는 고등학교 시절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자원봉사를 한 적이 있다.

그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즐거움과 국제대회의 현장감을 느낄 수 있어 참여하게 됐다"며 "대회를 찾은 관람객들을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김세희(21 · 대불대 영어교육과) 씨는 대학이 있는 전남 영암에서 열리는 세계적인 자동차 경주대회라는 사실에 자원봉사자 모집 공고를 보자마자 주저하지 않고 지원했다.

그는 "본래 고향은 경주지만 2년간 학교생활을 하면서 영암을 제2의 고향처럼 느끼게 됐다"며 "외국인 관람객들에게 영암과 전남지역 곳곳을 소개해 우리나라 명소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F1 코리아 그랑프리에는 12만여 명의 관중이 방문한다. 대회의 원활한 진행을 돕기 위해 전남도청 F1 조직위원회는 5백50여 명의 자원봉사자를 선발했다. 초등학생부터 할아버지, 외국인 등 다양한 이력의 자원봉사자들은 F1 대회를 찾아온 관람객들의 손과 발이 될 예정이다.

F1 대회 자원봉사자 중에는 한국에 사는 외국인 10여 명도 포함돼 있다. 월드컵, G20 정상회의 등 한국 관련 행사에서 빠짐없이 자원봉사를 해온 캐나다인 월터 A. 포어맨(39) 씨는 F1의 '빅 팬'이다. 12년 넘게 한국에 살면서 F1 대회가 한국에서 개최되기를 기다렸다.

그는 "이번 F1 대회 개최를 통해 F1에 대한 한국인들의 이해와 관심이 늘기를 바란다"며 "F1 대회는 한국의 자동차산업과 경제적 위상을 세계인에게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한국교원대 영어교육과 객원교수로 있는 그는 F1 대회를 보러 한국에 올 외국인들에게 "한정식과 찜질방, 인터넷, KTX 같은 한국의 독특한 문화와 산업을 알리고 싶다"고 했다.

단순한 자원봉사자를 넘어 F1 대회의 성공 개최를 책임지는 또 하나의 '선수'로 뛰게 될 이들은 10월 16일 현장교육을 마치고 21일 대회 리허설을 통해 본격적인 손님맞이 채비에 나선다.

전남도청 오송귀 F1 조직위원회 인력양성팀장은 "2010 F1 코리아 그랑프리에 다양한 경력자들이 자원봉사자로 나서 나눔과 봉사의 소중함을 알리는 뜻깊은 대회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G

글 · 김민지 기자

영암 서킷에서는 F1 대회 기간 동안 코리아 록페스티벌, 넌버벌 퍼포먼스 등 화려한 공연을 즐길 수 있다. 사진은 9월 초 영암 서킷에서 열린 F1 D-100일 기념행사 장면. KAVO

F(un)1 대회?… 신명 나게 놀아보자

테마 콘서트·카퍼레이드·에어쇼 등 부대행사 풍성

F1 코리아 그랑프리 대회 기간 내내 전남 영암 경주장 주변과 인근 목포 거리는 온통 젊음의 열정으로 넘쳐난다. F1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도 한바탕 신명 나게 즐길 수 있는 축제가 10월 20일부터 5일간 풍성하게 준비돼 있다.

"모터스포츠 마니아지만 F1을 혼자만 즐기기보다는 가족, 친구와 함께 즐기고 싶어요."

모터스포츠를 좋아하는 친구 셋이 모여 만든 F1 전문 블로그 'F1 바라기'에 최근 올라온 글이다. 이번 F1 대회를 손꼽아 기다리며 일명 'F1 바이러스'에 중독됐다는 이 블로거는 F1 대회 결승전 티켓을 구매하면서 대회를 볼 겸 전남의 숨은 관광지와 맛집을 찾아나서기로 했다.

영암 F1 대회는 모터스포츠 마니아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10월 20~24일에는 영암 서킷, 그 주변과 목포 시내, 해안도로 등에서 마니아뿐 아니라 문외한도 즐길 수 있는 'F1 스피드업 페스티벌'이 열린다. 국내 정상급 가수와 DJ, 공연팀 등이 출연하는 테마 콘서트, 카퍼레이드와 시범 드라이빙, 세계 명차 전시 등 차림상이 다채롭다.

페스티벌의 선두는 세계 명차 3백여 대가 출동하는 국내 최대 카퍼레이드다. 진귀한 슈퍼카, 레이싱카, 클래식카, 동호인 자동차, 오프로드 자동차 등이 행렬을 지어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나흘간 매일 오후 5시부터 2시간 동안 전남도청을 출발해 목포 시내를 통과하고 평화공원까지 가면서 F1 대회의 흥을 돋운다.

드리프트 드라이빙 시범으로 관람객 사로잡아

카퍼레이드 사이사이에 기획된 레이싱걸 포토 타임, 브라스밴드 공연, 할리 데이비슨 동호회 퍼레이드도 볼거리다.

F1 레이스의 맛보기인 드리프트 드라이빙 시범도 관람객

들을 사로잡을 행사다. 드리프트 드라이빙이란 코너를 돌 때 뒷바퀴를 미끄러뜨려 속도를 거의 줄이지 않고 통과하는 전문 드라이버들의 고난도 운전기술이다.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나흘간 밤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방호벽으로 둘러싸인 목포 시내 샹그리아호텔 네거리 근처 드리프트 전용 장소에서 레이싱카들이 드라이빙 솜씨를 뽐낸다.

명차들을 차분하게 감상하고 싶다면 목포 하당지구 평화광장 주변과 해안도로 일대에서 펼쳐지는 모터 존에 가면 된다. 모터 존에는 레이싱카, 슈퍼카, 클래식카 등 흔히 볼 수 없는 명차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근처의 F1 존은 F1 대회 홍보관과 체험관이다. 또한 남도문화와 맛을 홍보하는 컬처 존, 카누·카약 등 해양 레저스포츠를 체험할 수 있는 레포츠 존도 마련돼 있다.

10월 21일 목포 평화광장에서는 투애니원(2NE1)과 유키스가 함께하는 'F1 대회 성공 기원 특집 콘서트'가 열린다. 이날부터 24일까지 매일 평화광장과 인근 사랑의 광장에서 F1 대회의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테마 콘서트가 열린다. 나르샤, 김태우, 럼블피시, DJ DOC, 크라잉넛, 시크릿, 노라조 등 20여 가수와 밴드가 출연해 매일 오후 7시 30분부터 3시간 가까이 공연을 펼친다.

영암 경주장 하늘 수놓을 에어쇼도 펼쳐져

참가자들은 10월 22~24일 테마 콘서트가 끝난 뒤부터 새벽까지 평화광장 무대나 F1 홍보관에서 레이브 파티(Rave Party·클럽 DJ들이 연주하거나 틀어주는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것)를 즐기며 젊음의 열기를 발산할 예정이다. 서울 홍대 클럽의 유명 DJ들이 출동해 F1 로고송을 이용한 리믹스 음악과 최신 유행곡을 들려준다.

영암 경주장의 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을 에어쇼도 펼쳐진다. 메인 그랜드스탠드 상공에서는 10월 23~24일 양일간 대회가 시작되기 전 한국 최고의 에어쇼 팀 '블랙 이글스'가 항공기 8대를 몰며 박진감 넘치는 에어쇼를 벌인다.

또 그리드(Grid·출발 및 도착선) 상공에서는 육군 고공 낙하단이 등장해 낙하 퍼포먼스를 펼치며 그리드에 착지한다. 이어 지상에서는 취타대의 나팔소리와 함께 'F1, 전남을 열다'라는 축하 공연이 열린다.

이어서 어가 행렬, 강강술래, 농악대에 이어 비보이, 상모, 태권도가 어우러져 합동공연을 펼치고, 마지막으로 전남의 꽃과 나비들이 춤을 추며 기쁨을 노래하는 것을 상징하는 '꿈의 질주' 순서로 막을 내린다.

F1 스피드업 페스티벌 주요 행사

행사 종류	내용	장소
주 무대 행사	• 의장대, 군악대, 인디밴드 공연 • 특집 공개방송(2NE1, 유키스 출연) • 테마 공연(판타스틱, 점프, 배틀비보이+김덕수 판) • 테마 콘서트(나르샤, DJ DOC, 노라조 등 출연) • 불꽃쇼 • 홍대 클럽의 DJ와 함께하는 디스코 파티	목포 평화광장 주 무대
전시·체험 행사	• F1 존(F1 홍보관, F1 체험 이벤트, 포토 이벤트) • 모터 존(레이싱카, 클래식카, 튜닝카 등 전시) • 컬처 존(남도 홍보관, 남도 맛 페스티벌) • 레이싱 존(카트레이싱 체험) • 레포츠 존(해양 레저스포츠 체험, 요트 인쇼어)	목포 평화광장, 해안도로, 평화광장 앞바다
거리 문화공연	• 카퍼레이드 • 야간 드리프트 시범 • 오픈 스테이지(댄스 스포츠, 록밴드, 비보이 공연, 스타 발굴 공개 오디션 등) • 문화공연(아카펠라, 퓨전 국악, 브라스밴드 공연 등)	목포 시내, 평화광장 앞 도로, 목포 사랑의 광장 등
그리드 이벤트	• 코리안 록페스티벌(로맨틱 펀치, 내 귀에 도청장치 등 출연) • 결승 개막식(에어쇼, 취타대, 태권도 퍼포먼스) • 폐막식 콘서트	영암 서킷

※ 각 행사 일정과 시간은 홈페이지를 참조.

F1 스피드업 페스티벌 ☎ 061-288-5041 www.f1festival.kr
2010 전남~제주 국제요트레이스 ☎ 061-469-1330
www.jeonnam-jeju.com

10월 23일과 24일 영암 경주장을 찾은 관람객들은 경주가 쉬는 동안 문화공연을 볼 수 있다. 로맨틱 펀치, 내 귀에 도청장치, 나폴레옹 다이너마이트 등 국내 유명 인디밴드가 코리아 록페스티벌을 열며 판타스틱, 점프, 김덕수 사물놀이패와 비보이의 합동공연 등 넌버벌 퍼포먼스도 신명을 돋운다.

한편 F1 대회와 같은 기간인 10월 22~24일 목포 평화광장 앞바다에서는 2010 전남~제주 국제요트레이스가 열려 요트들이 바다를 수놓는다. 프랑스, 이탈리아, 싱가포르 등 10여 개국의 요트 50여 척과 선수 2백50여 명이 참가해 목포항에서 제주도 산지항까지 항해하는 행사다. 목포항과 산지항에서는 요트 승선 체험 행사와 요트 사진 전시회, 관련 장비 전시회도 열린다. G

글 · 최은숙 기자

"와~ 헤엄도 잘 쳐. 신기해, 엄마."

"아빠, 원래 오리가 사람들을 저렇게 안 무서워해?"

구름 한 점 없이 화창한 10월 10일 일요일 오후.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화명지구 내에 자리한 수생식물원에서는 조잘대는 어린이들의 청량한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쉴 새 없이 퍼져나왔다.

낙동강변 쪽으로 각종 수생식물 등을 관찰할 수 있도록 만든 수생식물원 데크에선 예닐곱 아이들이 한 손엔 과자와 빵 조각을 집어들고 무언가 신기한 듯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데크 아래에 인공으로 조성한 소규모 저수지의 수생식물 사이에서 한가로이 일광욕을 즐기는 오리떼에 푹 빠져 있었던 것. 저수지 한가운데에 새들의 쉼터로 마련한 소형 정자(亭子)에서는 마치 사람들이 유유자적하는 듯 오리 몇 마리가 가을 햇살과 바람을 만끽하고 있었다.

수생식물원, 자연의 자생력 실감하는 교육의 장

흰 뺨에 노을빛이 물든 검둥오리가 부리로 재빠르게 작은 물고기를 잡아 꿀꺽 삼키자 아이들의 입에서는 "와" 하는 함성이 터져나왔다. 아이들이 기쁜 마음에 과자를 던져주자 이를 받아먹으려고 사방에서 몰려드는 오리들로 또 한 번의 진기한 광경이 펼쳐지기도 했다. 부모들도 자연 다큐멘터리를 보는 듯 잠시 넋을 잃고 아이들의 시선을 좇았다.

몇몇 오리들은 아예 물 밖으로 나와 가을을 즐겼다. 사람들이 다가가도 일부러 모른 척하는 건지 자신의 털을 고르거나 낮잠에 빠져 있었다. 흰뺨검둥오리, 청둥오리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튀어 보이는 흰 오리는 그래도 사람들이 좋은지 연신 먹이를 달라고 아이들과 눈을 맞추며 데크 쪽으로 걸어나왔다.

이처럼 수생식물원 주변은 화명지구 준공 후 주민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볼거리 코스로 자리 잡았다. 준공 직전만 해도 간간이 백로 등이 찾아왔으나 이젠 오리와 인근 을숙도에서 날아든 텃새들의 단골 놀이터가 됐다. 오리만 해도 수개월

4대강살리기 사업의 첫 결실인 부산 화명지구가 준공 한 달을 맞았다.
10월 10일 찾은 화명지구는 도시 속 초록빛 쉼터로 자리 잡았다.

준공 1개월 맞은 낙동강 부산 화명지구

도시 속 초록빛 쉼터로 거듭났다

건강한 숨소리가 들렸다. 자연과 사람이 하나 되는 '조화'의 소리다. 4대강살리기 사업 중 처음으로 지난 9월 10일 준공식을 가진 낙동강 부산 화명지구가 도시 속의 쾌적한 '자연 섬'으로서의 기능을 본격적으로 발휘하기 시작한 것. 화명지구를 찾은 시민들의 표정은 거창한 감탄사는 없지만 '염화미소(拈華微笑)'로 하나가 돼 준공 한 달의 효과를 짐작케 했다.

전 인근 주민이 자비를 들여 몇 마리를 방사한 후 개체 종과 수가 크게 늘어 30~40마리 이상 관찰되고 있다. 그야말로 자연의 자생력을 몸소 실감할 수 있는 현장인 셈이다.

주민과 자연이 하나 되는 '휴네이처 공원'

매주 일요일마다 두 딸과 화명지구로 산책을 나온다는 주민 김정욱(43) 씨는 "아이들이 TV로 한강을 접한 후 자꾸 서울에 가보자고 졸라서 달래느라 힘들었는데 이젠 아이들과 승강이를 벌일 일이 없게 됐다"며 "경치가 좋고 더구나 아이들에게 이처럼 새들이 스스로 생존해나가는 모습도 보여줄 수 있어서 교육효과도 큰 것 같다"고 만족해했다.

이날 화명지구 내 축구장에서는 부산의 한 대학 총동문회 행사가 열렸다. 총동문회 행사치고는 다소 규모가 작았지만 장소를 이곳으로 선택한 이유가 나름 있었다.

우선 화명지구로 들어서면 탁 트인 시야가 압권이다. 화명지구 진입 순간부터 강변 습지경관과 체육시설 등의 조망이 한눈에 들어온다. 눈이 즐겁고 시원한 강바람까지 불어 초록빛 쉼터로는 안성맞춤이다. 이미 주민과 자연이 하나 되는 장이라는 의미에서 화명지구는 지난해 북구청 자체 공모를 통해 '휴네이처 공원(Hu-Nature Park)'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아직은 걸어서 화명지구로 들어설 수 있는 진입로가 3곳에 불과해 시민들이 접근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부산시와 10월 중으로 화명지구 관리권을 시에서 넘겨받는 북구청은 추후 진입로 확장공사 등을 벌여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현재는 화명역(국철) 인근 지하도로로 진입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살리려는 차원에서 낙동강변 습지 조성 지역엔 인공 구조물을 전혀 설치하지 않았다. 둔치와 강변을 잇는 산책로가 전부다. 둔치 쪽 주차장 바닥에도 시멘트 대신 돌과 잔디가 깔려 있다.

강줄기를 끌어들여 조성한 습지엔 갈대 등이 무성하게 자라나고 있었다. 시각적으로는 다소 불만족스러울 수도 있지만, 그 안에선 개구리와 물고기 그리고 말풀 같은 각종 식물이 공존하는 작은 생태계가 유지되고 있다.

산책로·자전거도로, 자연친화형 황톳길 조성

화명지구 중앙으로 길게 뻗은 산책로(4.6킬로미터)와 그 옆 자전거도로(3.5킬로미터) 역시 자연친화형 길로 아스팔트 대신 맨땅과 황토로 조성됐다. 지구 중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강변 쪽 자연 그대로의 생태환경과 둔치 쪽에서 활발한 시민들의 여가활동 광경을 고개만 돌리면 두루 가까이 접할 수 있다.

체육시설 역시 시민들이 애용하고 있다. 이날도 '야구의 도시 부산'답게 두 개 야구팀이 야구장 2면에서 경기를 즐기고 있었다. 현재 테니스장 10면과 농구장 10면, 인라인스케이트

'너무 가까운 당신'이 된 화명지구. 이젠 인근 주민들이 일상으로부터의 탈출을 만끽할 수 있는 녹색 명품이 됐다. 화명지구 중심에 뻗어 있는 자전거도로.

"아빠, 나도 태워주세요." 화명지구 내 체육시설에서 젊은 아빠들이 딸들에게 운동기구를 태워주고 있다.

화명지구 최고의 볼거리인 수생식물관 데크. 자연의 자생력을 보여주는 오리들이 '유유자적' 가을을 즐기고 있다.

장 1곳과 축구장 2면이 조성돼 있는데, 언제든지 북구청 예약 시스템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 이용료는 무료다.

북구청은 이용객 편의를 위해 조만간 체육시설에 대한 방송 및 펜스 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준공식 당시 자전거도로와 체육시설 사이의 공간은 풀이 무성하게 자란 채 방치돼 있었다. 하지만 이 공간도 최근 깨끗이 정리됐다. 여기엔 또 다른 자연생태환경이 조성된다.

북구청 문화체육과 민인선 체육시설계장은 "이 자리에 유채꽃 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라며 "체육시설과 조화를 이루는, 특화되고 차별화된 자연 이미지를 조성하기 위해 연꽃과 각종 나무도 심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부산시와 관리권을 인수인계하는 절차를 밟고 있어서 복잡한 상황이지만 곧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체계적인 관리에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직 화명지구는 공사 기간이 남아 있는 미완성 녹색 명품이다. 하지만 자연의 품에서 일상으로부터의 탈출을 만끽하고픈 부산 시민들에게겐 이미 '너무 가까운 당신'이 돼 있다. G

글 · 유재영 기자 / 사진 · 조영철 기자

부산 북구청 문화체육과 ☎ 051-309-4072~3

낙동강과 함께하는 그림 그리기 대회

"낙동강의 아름다움을 화폭에 담으세요"

4대강살리기 사업의 첫 결실인 부산 화명지구에서 그려본 낙동강의 전경은 어떠할까. 황폐한 낙동강 둔치에서 친환경 녹색 명품 쉼터로 변모한 화명지구에서 낙동강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재인식하는 가족 그림 그리기 대회가 10월 23일 열린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주최하고 한국환경공단과 울산·경남 환경보전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관내 1천여 명의 초중고 학생들이 참가할 예정으로, 이들은 '버려진 낙동강 둔치에서 아름답게 되살아난 화명생태공원'을 주제로 멋진 작품을 그리게 된다.

참가를 원하는 학생은 10월 21일까지 낙동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에 사전 등록하거나 울산·경남 환경보전협회 전화나 팩스, e메일(usgnepa@naver.com), 우편(주소 경남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 7-2 오피스플라자 빌딩 301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입상자에게는 환경부 장관상(대상·3명), 부산광역시장상(금상·3명), 낙동강유역환경청장상(금상·6명), 한국환경공단이사장상(은상·9명), 울산·경남 환경보전협회장상(동상·15명)과 상금이 수여된다. 수상작은 환경부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전시될 예정이다.

낙동강유역환경청 www.me.go.kr/ndg

울산·경남 환경보전협회 ☎ 055-287-9752~3 팩스 055-287-9754

나눔 손길로 퍼뜨리는 '행복 바이러스'

기업 특성 살린 저소득층 대상 재능기부 활발

기업들의 사회공헌 활동이 한층 다양해지고 있다.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하는 것뿐 아니라 기업 특성을 살린 재능기부도 활발하다. 국내를 넘어 해외로도 나눔의 손길을 확대하고 있다.

"비 올 때 우산 씌워주는 따뜻한 은행"

중소기업에 다니는 최미정(가명·34) 씨는 IBK기업은행 덕분에 잃었던 행복을 되찾았다. 만성신부전증을 앓아온 남편의 수술비를 최근 기업은행이 지원해준 것. 수술 후 건강이 호전된 남편은 올해 공공기관 재취업에 성공했고 세 차례 유산으로 아픔을 겪던 최 씨 역시 근심을 덜고 꿈에 그리던 둘째 아이를 가지게 됐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과 서민의 행복을 증진한다'는 가치를 최고의 경영목표로 삼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기업은행은 주 고객이 중소기업과 그 근로자인 만큼 그들에 대한 지원이 '고객 서비스'의 일환이라고 생각한다. 또 국책은행으로서 사회적인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가치를 임직원들이 공유하고 있다.

한 예로 기업은행은 2006년 설립한 'IBK행복나눔재단'을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 가족 3백35명에게 치료비 16억여 원을 지원하고 근로자 자녀 1천7백25명에게 장학금 14억원을 후원해오고 있다.

행복나눔재단 통해 치료비·장학금 지원

또 전국 6백 개 지점의 방대한 네트워크를 봉사활동 전진기지로 삼아 지역 밀착형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자원봉사 동호회만 79개. 이들은 홀몸노인·장애인 지원과 재난지역 피해복구 활동을 펼치며 '사랑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기업은행의 나눔경영은 2007년 12월 윤용로 행장 취임 이후 더욱 확산됐다. 윤 행장은 금융감독위원회(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재직 시절부터 금융회사의 사회공헌 활동을 기관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할 정도로 사회공헌 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져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은행은 2008년부터 윤 행장을 포함한 1만여 명의 전 직원이 매달 급여에서 일정액(0.2~1퍼센트)을 떼어 절반을 모으고, 은행이 같은 액수를 더하는 매칭 그랜트(Matching Grant) 방식의 'IBK사랑나눔기금' 등을 통해 백혈병 어린이, 홀몸노인, 빈곤국가 어린이에게 매달 일정액을 기부하고 있다. 윤 행장은 이 기금에 추가로 고액 기부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2008년 말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은행은 '기업 대출금리 인하' '서민 전용 고금리 통장 출시' 등 중소기업·서민 지원책을 앞장서서 실천하면서 사회공헌 활동을 기업경영의 중심축으로 끌어들였다. '비 올 때 우산을 씌워주는 따뜻한 은행이 되자'는 윤 행장의 지침에 따른 것이다.

이와 동시에 기업은행은 금융위기 와중에 경영 효율화를 통해 높은 실적을 올리고 이를 다시 사회에 돌려주는 국책은행의 모범 사례를 남겼다. 지난 2년간 자산 기준 국내 4위 은행으로 발돋움하는 동시에 같은 기간 사회공헌 사업비를 4백30퍼센트가량 늘려 당기순이익의 10퍼센트 이상을 사회에 환원한 것이다.

일부 공기업이 방만한 경영으로 여론의 지탄을 받는 시기, '실적'과 '나눔'이라는 두 가지 성과를 동시에 올린 기업은행의 사례는 공공기관 사회공헌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

"미소학습원 통해 창업 노하우 전수"

북한이탈주민 김가은(가명·46) 씨는 지난 8월부터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에 있는 현대차 미소금융재단에서 '창업의 꿈'을 키워나가고 있다. 창업 전문 컨설턴트에게서 창업 실무와

IBK기업은행

현대캐피탈

◀ 윤용로 IBK기업은행장(오른쪽에서 두 번째)과 직원들이 1사1촌 결연마을인 충남 태안군 안면읍 정당1리를 찾아 주민들과 함께 지역 특산물인 호박고구마를 캐고 있다. ▶ 현대차 미소금융재단 정태영 이사장(가운데)과 현대차그룹 윤여철 부회장(오른쪽)이 서울 서대문구 영천시장에서 미소금융 대출자와 만나 지원 성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현장 견학 등 총 75시간의 집중교육을 받고 있는 것이다.

김 씨는 교육을 마치면 현대차 미소금융재단에서 창업자금을 대출받아 고추장, 된장 등 장류를 전통 북한식으로 생산하는 식품업체를 차릴 계획이다.

현대캐피탈이 운영하는 현대차 미소금융재단이 차별화된 창업교육으로 주목받고 있다. 원래 '미소(美少)금융'은 정부 주도로 대기업 및 금융회사가 저소득층에게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소액대출 사업이다. 현대차 미소금융재단의 경우 현대차그룹이 향후 10년간 2천억원을 출연하며, 그 운영은 현대캐피탈이 맡고 있다.

현대캐피탈은 지난해 말 미소금융재단 운영을 맡으면서 '어떻게 하면 차별화된 창업 지원을 펼칠 수 있을까'를 고민했다고 한다.

'창업은 자본과 사업 스킬, 노력이라는 3박자가 맞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고심 끝에 현대캐피탈이 내린 결론은 '물고기를 잡는 법'을 함께 가르쳐준다는 것.

이에 따라 현대차 미소금융재단은 올해 3월 미소금융 최초로 창업 전문 교육기관인 '미소학습원'을 설립했다. 자금대출 창구와 별도로 예비 창업자에게 재무, 법률, 마케팅, 정보기술(IT) 활용 등 창업 노하우를 전수해주는 전문 창업 교육기관을 설립한 것이다.

황유노 현대캐피탈 경영지원본부장(전무)은 미소학습원의 역할에 대해 "창업 교육과 사업 컨설팅 등 창업의 전 과정에 걸쳐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비 창업자들은 미소학습원을 중심으로 꿈과 희망을 키우고 있다. 최근까지 2백88명의 예비 창업자가 미소학습원에서 창업과정을 수료했다.

또 통일부가 추천한 북한이탈주민 17명도 창업교육을 받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국내 법률체계에 익숙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사업체 설립 등 법률 부문도 지원해준다.

'드림 실현팀' 운영… 창업 후 디자인·마케팅 등 지원

여기에 더해 현대차 미소금융재단은 창업자들의 '창업 이후'를 집중 지원하는 팀도 운영 중이다. 이름은 '드림 실현팀'. 창업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집단이 창업 이후 점포 인테리어, 제품 디자인, 마케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 같은 현대캐피탈의 사회공헌 활동은 사업과 관련된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활용해 사회에 기여한다는 '재능기부' 정신에 바탕을 두고 있다.

재능기부는 '공익을 위하여'라는 뜻의 라틴어 '프로 보노 퍼블리코(Pro Bono Publico)'에서 유래한 개념이다. 건설업체가 낙후지역의 집짓기를 지원하거나, 병원이 의료봉사 활동을 펼치는 것도 재능기부에 속한다. 이제는 기업들의 사회공헌 활동이 일회성 금전적 지원에서 한 단계 발전해 자신의 재능을 이웃과 나누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글 · 선정민(조선일보 경제부 기자)

비씨카드

비씨카드는 취사시설을 갖추고 1시간에 6백인분의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사랑, 해 빨간 밥차' 12대를 전국 사회복지기관에 기증했다.
비씨카드 장형덕 사장(오른쪽에서 두번째)이 '사랑, 해 빨간 밥차'에서 무료 급식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비씨카드

'사랑, 해 봉사단' 출범으로 나눔 확산

경기불황 여파로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의 삶은 여전히 팍팍한 가운데, 비씨카드가 이들을 돕기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다. 비씨카드는 회원수 2천7백만명이 넘는 대형 카드사 중 한 곳이다.

사회공헌 활동의 주역은 장형덕 사장. 2008년 취임한 그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려면 그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실천에 힘쓰고 있다.

장 사장은 우선 기존의 무료급식 사업을 '사랑, 해 빨간밥차 지원사업'으로 확대했다. 빨간밥차는 5톤 차량 내부에 취사시설 및 냉장시설 등을 갖추고 1시간에 6백인분의 음식을 즉석에서 제조할 수 있도록 특수하게 개조한 차량이다.

2005년부터 현재까지 12대(대당 1억5천만원)를 제작해 전국 사회복지기관에 무료로 기증했다. 비씨카드는 이를 통해 지역 밀착형 무료 급식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매년 50개소 소규모 어린이문고 설치·도서 보급

사실 비씨카드는 1990년대 초부터 카드 사용액의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해 저소득층 청소년의 장학금으로 지원했을 정도로 사회공헌 역사가 깊다. 올해 비씨카드의 사회공헌 활동은 새로운 전기(轉機)를 맞이했다.

'사랑, 해가 떴습니다!'라는 사회공헌 브랜드를 만들고, 사내 봉사단 명칭도 '사랑, 해 봉사단'으로 통일해 재출범했다. 비씨카드 측은 "앞으로도 비씨카드의 사회공헌 활동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끔 탄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비씨카드는 2008년부터 저소득층 어린이 중에서 3백명의 바이올린 꿈나무를 발굴해 악기, 레슨, 공연 등도 지원하고 있다. 이는 지난 몇 년간 전국 1백50개 지역아동센터 및 공부방에 12만 권의 서적을 지원한 '저소득층 문화 지원사업'을 더욱 확대한 것이다.

지역아동센터 및 공부방에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자 매년 50개소에 소규모 어린이문고를 설치하고 도서를 보급하는 '빨간 사과 어린이문고 지원사업'도 쉼 없이 진행 중이다.

이 밖에 비씨카드는 다문화가정 PC 지원, 황혼 결혼식 및 어르신 효(孝) 잔치 마련,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건립 등 소외계층을 위한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비씨카드의 사회공헌 활동은 비단 임직원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고객들도 기부 활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탑(TOP) 포인트 기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비씨카드는 기부 전용 사이트 '사랑해'를 운영 중인데, 지금까지 12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포인트 기부 대열에 동참하는 등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포인트를 기부할 수 있는 곳은 매달 달라지는데, 10월에는 세이브더칠드런, 사회복지공

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그룹은 지난 4월 창립 9주년을 맞아 '제1기 글로벌 자원봉사단'을 구성하고 베트남 빙푹성에서 해외 봉사활동을 펼쳤다. 우리금융 봉사단원들이 현지 어린이들에게 간식을 나눠주고 있다.

동모금회(사랑의 열매), 사랑의 리퀘스트 등 3곳의 사회복지 단체가 선정돼 있다. 물론 고객은 이 중에서 포인트를 기부하고자 하는 단체를 선택할 수 있다.

포인트 기부는 한 번에 최소 1천 점부터 최고 3만 점까지 가능한데, 비씨카드 측은 포인트 기부 활성화를 위해 향후 1점 단위로도 기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꿀 계획이다. 누적 기부포인트가 1만 점 이상이면 소득공제용 영수증도 발급받을 수 있다. **비씨카드 기부 전용 사이트 '사랑해' www.bccard.com/lovesun**

우리금융그룹

"지구촌 곳곳에 나눔 바이러스 전파"

우리금융그룹의 사회공헌 활동 무대는 지구촌이다. '함께하는 우리,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사회공헌 사명을 지구촌 곳곳에서 실천해 나눔 바이러스를 전 세계에 퍼뜨리고 있다.

지난 4월 우리금융그룹 소속 직원들로 구성된 '제1기 글로벌 자원봉사단'이 출범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나왔다. 단순히 국내에 제한하지 않고 향후 지속적으로 글로벌 사회공헌 활동을 실천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1등 금융그룹으로 도약'이라는 우리금융의 경영 이념과도 일맥상통한다.

우리금융그룹은 창립 9주년인 올해 4월 2일을 '글로벌 커뮤니티 서비스 데이'로 정한 뒤 국내·해외 근무 임직원 7천5백여 명이 참여하는 그룹 차원의 글로벌 자원봉사 활동을 동시에 실시하기도 했다.

글로벌 자원봉사단 1기 발대식에서 이팔성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국내 사회공헌 활동에 이어 해외에 나가서도 사회공헌의 진정성과 우리금융 직원으로서의 자부심을 잊지 말고 열과 성을 다해 봉사하라"고 당부했다.

베트남 빙푹성으로 떠난 '제1기 글로벌 자원봉사단'은 직업훈련센터 기숙사와 도서관을 신축하고 지역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활동을 펼쳤다. 빙푹성은 1인당 연간 평균소득이 2백 달러 정도이고 교육시설 인프라가 매우 열악한 농촌지역. 우리금융그룹 자원봉사단의 도움으로 기숙사와 도서관이 새로 생기자 이 지역 주민들과 아이들이 매우 기뻐했다고 자원봉사단이 전했다.

글로벌 자원봉사단 출범… 베트남 빙푹성서 교육봉사

이처럼 올해부터 사회공헌 지평을 국내에서 해외로 확대한 배경에 대해 우리금융그룹 관계자는 "올해 우리나라가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경제 어젠다를 뒤좇는 나라에서 이끄는 나라로 국격을 높인 데 따라 글로벌 금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우리금융그룹은 지구촌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해외에서 존경받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국내 사회공헌 활동의 고삐도 늦추지 않고 있다.

우리금융그룹 임직원들은 모두 설이나 추석 등 명절이 되면 지역 내 홀몸 어르신들에게 농촌 자매결연 마을에서 구입한 쌀과 과일을 전달하면서 이웃 간의 정을 나누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지난 추석 때는 그룹 및 10개 전 계열사가 홀몸 어르신과 다문화가정에 모두 1억9천만원을 지원했다.

이와 함께 계열사 임직원 7백여 명이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우리은행 소속 1백50여 명의 임직원들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 청음회관을 비롯해 50여 곳에서 '한가위 사랑의 송편 나누기' 활동을 펼쳤고, 광주은행은 1백60여 명의 임직원이 인애동산 복지관 등 광주 소재 복지시설을 방문해 성금을 전달했다.

또 우리투자증권은 다문화가정을 돌보는 일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4월엔 서울 영등포구청과 함께 다문화가족의 문화를 지역 주민에게 자연스럽게 전달하기 위해 홍보 부스를 만들고 가요제를 개최했다. 우리투자증권 직원들은 다문화가정 주민들과 어우러져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6개국의 민속놀이를 함께 즐기고 음식을 맛보며 각별한 정을 나눴다. G

글·이경은(조선일보 경제부 기자)

부전시장 '시장통 비엔날레'는 예술과 상인의 공존이 전통시장에서 실현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실험하는 프로젝트다.
토요일 부전시장에서 열리는 '야! 시장에서 난장 부린다며?' 행사에서 부전 유랑단이 시장 곳곳을 돌며 상인, 시민들과 교감하고 있다.

예술과 전통시장이 만나면…

부산 부전시장 문전성시 프로젝트 '시장통 비엔날레'

부산의 대표적 전통시장인 부전시장이 되살아났다. 우울한 과거의 분위기는 온데간데없다. 활기찬 흥정 소리만이 가득하다. 시장을 일으켜세운 건 다름 아닌 예술. 문화체육관광부가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마련한 '2010 문전성시 프로젝트'의 하나인 '시장통 비엔날레'로 부전시장은 새롭게 태어났다.

"반짝이는 별빛 아래 소곤소곤…♬" 10월 10일 일요일 오후, 부산 부전시장에서 생선을 파는 '아리랑상회' 주인 할머니는 손님이 생선을 이리저리 뒤집어보건 말건 옛 가요 '무너진 사랑탑'의 도입부만을 몇 번이고 신나게 흥얼거렸다. 이유를 물었더니 할머니의 대답은 이랬다.

"저 위 천장에 매달린 거 땜에 생선들이 억수로 반짝거리지예. 말도 몬하게 신나는 거지예."

천장엔 음료수와 맥주 페트병 묶음이 걸려 있다. 초록색과 갈색 페트병이 시장 내 조명과 어우러져 묘한 불빛을 발산하고 있었다. 이 작품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전통시장을 되살리고 신인 미술작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기획한 '시장통 비엔날레'(9월 11일~11월 20일)의 아케이드 갤러리 작품 중 하나다.

신인 예술인 박연진 씨가 재활용 페트병으로 만든 희망의 나무(작품명 'TREE 美')다. 이 나무 아래에서 시장 상인과 손님 모두가 희망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로 제작한 것. 할머니가 노래를 부르는 이유를 작품의 의미를 알고서야 이해할 수 있었다.

체험 행사·예술 포장마차 등 다양한 페스티벌 눈길

이처럼 부전시장에는 천장과 점포 간판에 대형 그림과 설치작품 등이 걸려 손님을 맞고 있었다. 작품 아이디어는 부산지역 예술인 40여 명이 시장을 돌아다니고 합숙을 하면서 짜낸 것이다.

생선을 파는 가게나 마트가 있는 골목으로 진입하니 천장에 수십 가지 연이 매달려 있다. 이것도 아케이드 갤러리 작품이다. 연에는 상인들의 얼굴을 우스꽝스럽게 형상화한 '캐리커처'가 그려져 있다. 연 꼬리엔 상인들의 신체적 특징과 습

관을 신랄한 표현을 섞어 적어놓았다.

'생선가게 아저씨, 처진 몸뚱이에 물이 뚝뚝뚝… 현란한 칼놀림 뎅강뎅강. 이봐요 아저씨 물 튀겨요. 그럼 꺼져. 예사롭지 않은 눈빛, 알고 보니 그는 전설의 쌍칼. 후덜덜 덜덜.'

시장을 찾은 손님들이 입을 가리고 웃는다. 연의 그림과 글 그리고 주변 상인들을 번갈아 쳐다보다 주인공을 발견한 것이다. 이러다 손님들과 상인들은 물건을 흥정하기 전에 밝은 표정으로 만나게 되고, 상인들이 물건 값을 깎거나 덤으로 물건을 더 주는 정겨운 모습이 자주 연출된다.

부전시장에서는 문화예술과 상인이 결합된 이색 행사와 볼거리도 많다. 지난 5월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오후 2시면 부전시장 입구 건너편 공영주차장에 상인 DJ가 나타나 성대하게 야시장 개막을 알린다.

"'예술'이 들어오니 시장 분위기가 활기차졌다"

야시장에선 '국민 간식' 붕어빵을 직접 만들어보는 체험 행사가 열리며, 부산의 젊은 예술인들과 대중이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술을 즐길 수 있는 예술 포장마차가 운영된다. 여기서 손님들은 직접 주방장이 돼볼 수도 있다.

금요일과 토요일엔 시장 2층 다방에서 술이나 차를 마시면서 그림을 감상하고, '마담'이 된 작가들과 함께 경품 뽑기, 윷놀이 토너먼트를 즐길 수 있다.

부전시장 지하 수산물 코너에서는 상인들과 '공공의 적'인 고양이들이 서로의 공존을 위해 협상하는 희한한 퍼포먼스를 볼 수 있다.

부전시장 '시장통 비엔날레' 배인석 감독은 "이 비엔날레를 통해 '전통시장의 상권을 살린다는 것이 상인에게, 서민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술과 시장이 정말 공존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가능성을 실험하고 있는데 꼭 성공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장통 비엔날레' 효과로 시장을 찾는 손님들은 부쩍 늘었다. 상인들도 시민들이 자주 발걸음을 해준 것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고 보답한다.

특히 자발적으로 고객을 위해 합리적인 가격을 유지하자고 약속했다. 시장 구석 골목 소매상 주인들도 이런 분위기에 동참하고 있다.

"상추 값 깎아드릴게예. 지난주 1근에 3천원 했는데 가격이 내렸으니 2천원만 받을게예."

한 청과물 상인은 최근 가격이 급등한 채소를 손님들에게 싼값에 내놓고 있었다. 시장 상인들의 기분이 좋아지니 그들에게 낱개 과일을 파는 수레상 할머니들도 바쁘다.

"할머니예. 사과 한 소쿠리(주먹만한 사과가 7개 들어가는데 2천원이다) 주이소. 홍시도 있지예. 그것도 주시고."

부전시장 최윤엽 상인회장은 "'시장통 비엔날레'로 시장 전체 분위기가 전보다 밝게 변했다"며 예술이 시장으로 들어오는 것을 매우 반겼다.

최 회장은 시장이 한창 침체기에 빠져 있을 때보다 손님이 15~20퍼센트 증가했다며 비엔날레를 통해 젊은 층이 전통시장에 관심을 더 가졌으면 하는 바람을 나타냈다.

"앞으로 젊은 분들이 전통시장을 자주 이용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고장이 살아날 수 있죠. 마트나 백화점이 부산 시민한테서 벌어들인 돈으로 부산을 위해 투자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점포가 3백40개나 되는 부전시장, 나아가 4천3백여 개에 이르는 부전마켓타운은 이번 행사로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소비자들에게 더욱 친근히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침울했던 전통시장에 생기가 돈다. 전통시장을 이젠 문화시장이라 말할 수도 있겠다. G

글 · 유재영 기자

부전시장·부전마켓타운 '시장통 비엔날레' 문의 '날라리낙타사랑방' ☎ 051-805-2552

주말에는 전통시장 주변에 주차하세요

서민들이 전통시장 가기를 주저하는 요인 중 하나는 주차 문제다. 건물 내에 주차시설이 완비된 백화점, 마트와는 달리 전통시장은 근접 주차가 용의치 않다. 하지만 부산지역에선 주말과 공휴일에 한해 전통시장 주변에 주차가 허용되고 있다. 부산지방경찰청은 10월 2일부터 부산지역 전통시장 15개소 주변에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자갈치시장은 수협직판장과 신원상회 구간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차가 가능하다. 부산진시장에서도 시장 입구부터 성남초등학교 구간 사이에서 주차가 허용된다. 부전마켓타운도 타운을 형성하는 부전시장 등 5개 시장 주변 골목과 인도 등에서 주차가 가능하다.

점포 상인들의 얼굴 캐리커처와 습관 등을 신랄하게 표현한 글이 적힌 아케이드 연. 조영철 기자

엑스스틱 | 교통안전 신호봉 기능을 추가한 랜턴. 3개의 다리가 있어 바닥에 고정하면 야간에 응급신호 기능도 가능하다.(비트코 제품)

'톡톡' 아이디어 상품 중소기업 매출 '쑥쑥'

아이디어 상업화 지원사업… 롯데마트에 '아이디오몰' 개장

아무리 우수한 상품도 판로가 없다면 무용지물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들의 아이디어 상품을 한자리에 모았다. 중소기업은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생겨 좋고 소비자들은 신선한 아이디어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어 더 좋은 '아이디오몰(IdeOMall)'로 가보자.

지난 9월 8일 롯데마트 서울 금천점에 문을 연 '아이디오몰'은 중소기업청이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중소기업 아이디어 상업화 지원사업의 일환이다. 우수한 아이디어를 가지고도 비용 부족 등의 이유로 제품 개발을 활발히 하지 못하는 중소기업들이 우여곡절 끝에 제품을 개발해도 마케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 제품의 판매를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청은 상설 판매장의 판매·전시대 설치비 및 판매사원 인건비 등 시범 운영에 필요한 공동 경비를 지원하고, 롯데마트 서울 금천점은 매장 무상임대 및 관리비 할인, 홍보 전단지를 활용한 제품 소개 등을 지원했다.

상설 판매장의 판매·전시대 설치비 등 공동 경비 지원

아이디오몰은 중소기업의 판로를 개척해 기업 이익에도 도움을 주지만 톡톡 튀는 아이디어 제품을 찾는 소비자들을 위해서도 유용한 제품을 다양하게 구비하고 있다.

염색약을 넣고 쓱쓱 빗기만 하면 편리하게 염색이 되는 염

1 어메이징 박스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모양과 형태를 조립하고 다양한 모양으로 쌓아올릴 수 있다.(어메이징 박스 제품)
2 애니포트 화분이 넘어지지 않으며, 기능성 토양을 사용해 수시로 물을 주지 않아도 되고 화분받침이 필요 없다.(에코플러스 제품)
3 염색용 헤어브러시 염색약을 넣고 분사 버튼을 누르며 빗어내리면 염색이 된다.(헤어프랜드 제품)
4 참센 전기자전거 일반 자전거에 부품을 추가해 전기자전거를 만들 수 있는 장비.(참센 전기자전거 제품)
5 일회용 손가락 집게 나무젓가락이나 포크보다 편리하고 위생적으로 먹을 수 있다.(명보에프엔지 제품)

색용 헤어브러시, 교통안전신호와 야간 응급신호 기능이 가능한 '엑스스틱', 거치형이라 주인의 두 손이 자유로운 애견 전용 드라이기, 원하는 모양으로 조립이 가능한 어메이징 박스, 기존 자전거에 간단하게 장착하면 전기자전거가 되는 장비 등이 대표적이다.

또 화분 바닥에 실리콘 압착핀을 부착해 화분이 넘어지지 않고 기능성 토양을 사용해 수시로 물을 주지 않아도 되는 화분, 치킨이나 등갈비를 먹을 때 나무젓가락이나 포크보다 훨씬 편리하고 위생적으로 먹을 수 있는 손가락집게 등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제품들이 소비자를 기다리고 있다.

중소기업청 김형영 창업진흥과장은 "아이디오몰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정부가 우수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의 창업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판로 개척까지 도와 성공을 책임진다는 선례를 남길 것"이라고 말했다. G

글 · 우매화 객원기자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 ☎ 042-481-4535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제품개발실 ☎ 031-496-1416

취업·창업·여행 '똑똑한 앱'과 함께

정부·공공기관 제공 스마트폰 앱 인기

주요 정부·공공기관 무료 애플리케이션

기관명	애플리케이션명	주요 내용
문화체육관광부	정책 투데이	정부기관 정책정보
기획재정부·KDI	시사경제용어사전	시사용어, 경제용어
지식경제부	에너지 다이어트, 지식경제용어사전	에너지 절약요령, 경제용어
국토해양부	행복4강	4대강 주변 여행정보
보건복지부	숙녀 다이어리	여성 건강정보
농림수산식품부	안심 장보기	장 보는 요령
서울시	서울투어, 여성이 행복한 여행 만들기	서울시 여행, 구직, 보육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과 판례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취업도우미, 창업만물사전	중소기업 취업정보, 창업정보
한국과학기술평가원	R&D 인사이드	연구개발, 특허 동향

*일부 애플리케이션은 아이폰 또는 안드로이드폰 전용으로만 제공됨.

취업 준비생 현인수(26) 씨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동안 틈틈이 스마트폰으로 시사·경제용어를 찾아보고 있다. 취업시험에 필요한 경제상식을 쌓는 데 안성맞춤이기 때문이다. 현 씨가 무료로 내려받은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은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동 제작한 '시사경제용어사전'이다. 이 앱은 생소한 시사용어나 경제용어를 검색하면 용어 해설은 물론, 배경 상식과 관련 정책을 알아볼 수 있어 지난 2월 아이폰용으로 출시한 이래 내려받기 20만여 건을 기록하는 인기를 누리고 있다.

최근 정부와 공공기관들도 스마트폰 붐을 타고 '똑똑한 앱'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올 들어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시, 중소기업청 등이 각 기관의 정책, 취업, 창업, 여행, 판례, 생활정보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앱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작한 '정책 투데이'는 여러 정부기관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블로그 콘텐츠를 한곳에 모아놓은 앱이다. 정부 정책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동네 단위까지 꼼꼼하게 담은 날씨 정보, 철자와 띄어쓰기를 확인할 수 있는 한글 맞춤법 검사기 등을 제공한다.

창업자 위한 중소기업청 개발 '창업만물사전' 호응

법조인과 공무원뿐 아니라 판례가 궁금한 국민도 스마트폰 앱으로 법령정보를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다. 법제처가 내놓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25만여 건의 법령과 판례정보가 들어 있다. 이 앱은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 편찬·발행기관인 법제처가 지난 10년간 꾸준히 축적해온 법령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개발해 신뢰도가 높다.

서울시가 제공하는 위치 기반 관광정보 '서울투어'는 여행을 좋아하는 시민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유용하다. 서울시의 관광 명소, 식당, 숙박정보와 함께 대중교통으로 명소를 찾아갈 수 있도록 지도와 상세 경로도 볼 수 있다.

구직자와 창업자에게 유용한 앱도 있다. 중소기업청은 우수 중소기업으로 등록된 6만여 우수 중소기업 정보와 9천여 개의 채용 및 위치정보를 담은 '우수 중소기업 취업 도우미'를 무료 서비스하고 있다. 창업자들에게는 중소기업청이 개발한 '창업만물사전'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예비 창업자와 초기 창업자를 위한 맞춤 앱으로 창업 뉴스, 창업 단계별 정보, 지원제도 등을 제공해 창업 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고안했다.

보건복지부가 개발한 '숙녀 다이어리'는 여성 건강정보를 한눈에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앱이다. 숙녀 다이어리는 생리 예정일, 배란일, 가임 기간 등을 알려주어 수첩 대신 기록할 수 있는 앱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서울시는 '여성이 행복한 서울 만들기, 여행 프로젝트'를 통해 여성 일자리 구인정보, 어린이집 위치, 보육정보 등 여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밖에 국토해양부는 4대강살리기 사업을 홍보하는 '행복4강', 지식경제부는 생활 속 에너지 절약법을 알려주는 '에너지 다이어트', 농림수산식품부는 장 보는 요령을 담은 '안심 장보기',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은 국가 연구개발 현황을 담은 'R&D 인사이드' 등의 앱을 제공한다. G

글 · 우매화 객원기자

“다문화 어린이 위한 축구 멘터 될래요”

다문화가정 출신 첫 프로축구 선수 강수일

프로축구 K-리그 인천 유나이티드의 공격수 강수일(23). 그를 처음 접하는 팬들은 고개를 갸우뚱한다. 분명히 한국 이름인데 ‘흑진주’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피부색이나 생김새는 용병에 가깝기 때문이다.

그의 프로필을 잘 모르는 이들은 혹시 귀화한 외국인이냐고 묻기도 한다. 하지만 그는 엄연한 한국인이다. 주한미군이었던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자랐다. 그 이유만으로 강수일도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한 번씩 겪는 마음고생을 했다. 숱한 따돌림과 손가락질에 많이 울고, 자신을 놀리는 친구들과도 자주 다퉜다.

차별과 편견을 이겨내고 그는 지금 다문화가정 출신 첫 프로축구 선수로 당당히 그라운드에서 실력을 뽐내고 있다. 특히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에겐 든든한 지원군이자 희망이다. 축구 선수로서 지난 9월 국내 최초로 발족한 다문화가정 어린이 축구단 ‘M키즈’에도 수시로 찾아 남다른 애정을 쏟고 있다.

본인 스스로는 다문화 어린이들의 희망이자 ‘멘터’로 부각되는 것이 아직은 부담스럽다고 한다.

“아직 아이들에게 ‘롤 모델’이 될 ‘위인’은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 더 성숙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수일은 축구단 아이들에게 무한한 애착을 느낀다. 특히 콩고 출신으로 얼굴이 유난히 까만 다니엘이라는 아이에겐 더 관심을 갖고 있다. 자신의 어릴 적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다.

다문화가정 출신 첫 프로축구 선수인 강수일. 자신도 그랬던 것처럼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축구를 통해 세상과 밝게 소통하길 바란다는 마음을 드러냈다.

“축구 통해 밝게 웃고 당당한 한국민으로 성장하길”

“다니엘을 보며 저의 옛 모습을 추억했죠. 어릴 땐 친구들이 놀려서 한번은 거울을 보고 하얀 비누를 얼굴에 세게 문질러보기도 했어요. 비누가 하얀색이니까 피부도 그렇게 될지 알았나 보죠. 지금은 후회하지만 어머니한테 투정도 많이 부렸죠. 이젠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의기소침해하거나 자신감을 잃지 않았으면 합니다.”

축구로 설움을 극복한 그이기에 다문화가정 어린이 축구단 탄생 소식은 그 어떤 뉴스보다도 반갑다.

“저도 축구를 하면서 꼭 실력으로 성공하겠다는 마음을 다질 수 있었습니다. 축구를 하면서 제 성격도 긍정적으로 변했어요. 공을 함께 차면서 동료들과 ‘소통’하게 되고, 그러면서 나중엔 제가 먼저 친구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여유를 얻은 것 같아요. 지금은 피부색이 다른 게 너무 좋아요. 그라운드에 있을 땐 더 튀어 보이잖아요. 팬이나 주변 사람들도 저를 잘 잊지 않을 테고요. 어릴 때 아버지가 미국으로 건너오라고 하셨는데 그때 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도 해봐요.

이제 다문화 어린이들도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걸 느꼈으면 합니다. 생긴 건 달라도 아이들이 축구를 통해 밝게 웃고 커서도 당당한 한국민으로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팬들께서도 다문화 어린이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G

글 · 유재영 기자 / 사진 · 조영철 기자

꿈 다시 만들어준 스포츠바우처 킹왕짱!

저소득층 어린이·청소년에게 스포츠 활동비용 지원

스포츠바우처는 저소득층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스포츠를 통해 건강을 지키고 건전한 여가를 즐기며 나아가 꿈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다.

조영철 기자

조승렬, 충렬, 현렬 3형제는 스포츠바우처 지원으로 함께 태권도를 배우며 성격도 활발해지고 형제간 우애도 더 좋아졌다. 오른쪽은 3형제에게 태권도를 가르치는 손정남 사범.

"스포츠바우처 덕분에 태권도를 다시 시작해서 태권도 사범의 꿈도 키우고, 동생들과 운동을 같이 하게 돼서 고마워요."

서울 도봉구에 사는 조승렬(17), 충렬(11), 현렬(8) 3형제는 함께 태권도를 배운다. 태권도 사범이 꿈인 첫째 승렬이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태권도를 했는데 집안 형편 때문에 6학년 때 그만뒀다. 하지만 스포츠바우처 지원으로 지난해 겨울부터 태권도를 다시 시작했고, 두 동생도 같이 태권도를 배우게 됐다. 둘째 충렬이도 "태권도를 하니 몸이 튼튼해지고 동생이랑 형이랑 같이 운동하니까 즐겁다"고 말했다.

내성적이었던 충렬이와 현렬이는 태권도를 배우면서 적극적인 성격으로 바뀌었다. 형제에게 태권도를 가르치는 손정남 사범은 "아이들이 처음 왔을 때는 많이 내성적이어서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는데, 지금은 친구도 많아지고 운동도 주도적으로 한다"고 귀띔했다.

아버지 조일환 씨도 "아이들이 운동을 하면서 활발해지고 밝아졌다"며 "달라진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흐뭇하다"고 말했다.

스포츠시설 이용료 매월 1인당 6만원 이내 지원

형제가 태권도를 배운 후 달라진 점은 또 있다. 함께 태권도를 하면서 공통의 화제가 생겨서 가족 간에 대화가 늘었고 자연히 형제간 우애도 좋아졌다. 아버지 조 씨는 "같이 운동을 하면서 친밀감을 형성하고 사회성도 기르게 되어 아이들한테 좋은 경험이 되고 있다"고 했다.

"사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생각은 있어도 환경이 어렵다 보니 아이들에게 제대로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이 집에서 하는 일 없이 있으면 부모로선 속상하죠. 뭔가 하나라도 가르치고 배우게 해주고 싶은데 형편 때문에 못 해주니까요. 아이들도 나름대로 걱정거리들이 있는데 그것을 운동으로 해소하고 건강해지고 여러모로 좋은 점이 많습니다."

경기 고양시 어울림누리 문화체육센터에서 스케이트를 배우고 있는 전은진(11) 양도 스포츠바우처 덕분에 스케이트 선수의 꿈을 키우고 있다.

은진이의 어머니 전계영 씨는 "스케이트 신발만 해도 10만원이 넘는 데다 성장하면서 계속 신발을 바꿔줘야 하니 부담이 되는데, 스포츠바우처가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저소득층 아이들이 생활면에서 겪는 스트레스가 있어요. 아이들도 거기에 적응을 하면서 살고 있지만 그 스트레스가 성인이 될 때까지 누적된다는 게 문제죠. 아이들이 스포츠를 통해서 그런 스트레스를 적절히 해소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봅니다."

내년 예산 123억1천만원으로 2만8천여 명 혜택

스포츠바우처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김지희 사무관은 "스포츠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 증진, 삶의 질 향상, 평생의 운동습관 형성에 매우 중요하지만 저소득층 아이들과 일반 가정 아이들의 체육 활동은 거의 두 배가량 차이가 난다"며 "저소득층 어린이와 청소년의 체육 활동을 통한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스포츠바우처를 실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스포츠바우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만 7~19세 어린이 및 청소년에게 스포츠시설 이용료와 스포츠용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스포츠시설 이용료는 매월 1인당 6만원 이내, 스포츠용품 구입비는 연간 1인당 6만5천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거주 중인 시군구청에 스포츠바우처 이용 신청을 해서 회원 등록이 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공공 또는 민간 체육시설에서 원하는 스포츠 강좌를 수강할 수 있다.

지난해 39억2천만원의 예산으로 9천4백2명이 혜택을 받았고, 올해는 60억원으로 예산이 늘어나 연말까지 1만3천9백명이 지원받을 것으로 보인다.

스포츠바우처 예산은 내년에는 1백23억1천6백만원으로 올해보다 1백5퍼센트 늘어난다. 김 사무관은 "이렇게 되면 올해는 전체 대상자 36만2천명 가운데 3.8퍼센트만 지원을 받았지만 내년에는 8퍼센트인 2만8천9백60명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G

글 · 이혜련 기자

스포츠관람바우처 10월 4일 시행

저소득층에 연 18만원 스포츠 관람비 지원

동아DB

소득과 상관없이 누구나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에 프로스포츠 관람비용을 지원한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문화바우처, 스포츠바우처, 여행바우처 사업에 추가해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스포츠 관람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스포츠관람바우처' 시범사업이 10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스포츠관람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4인 가족이 분기별로 1회 이상 프로스포츠를 관람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가구당 연간 10만원의 비용을 지원한다. 소득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선진국형 스포츠 관람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가 전체 비용의 50퍼센트인 10만원을 지원하고 프로스포츠단체에서 40퍼센트인 8만원을 지원하며 나머지 10퍼센트 2만원은 수혜자 본인이 분담해 가구당 연간 20만원의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관람할 수 있는 종목은 야구, 축구, 농구, 배구 등 프로스포츠 4개 분야의 정규 시즌 및 플레이오프 경기다. 단, 프로야구의 경우 지정석은 구매할 수 없고 일반석만 가능하다.

스포츠관람바우처는 10월 4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 또는 행정안전부 OK주민서비스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올해 5억원이라는 한정된 예산으로 실시하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재원이 소진될 때까지만 지원한다.

스포츠관람바우처는 가구당 1장의 스포츠 관람 카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지원한다. 따라서 신청할 때 가구주와 신청인이 모두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여야 하고, 신청인이 가구주가 아닐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가구주와 가구원의 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스포츠 관람 카드를 발급받고 인터넷 예매나 현장 구매 등으로 가구당 일일 1회, 월 4만원, 연 18만원 한도 내에서 스포츠 관람 티켓을 구입할 수 있다. 다만 18만원 한도 보장이 아니라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홍용택 사무관은 "내년부터는 예산을 더 확보하고 관람 종목도 확대해 사회취약계층이 스포츠를 통해 사회적 소외감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체육진흥공단 www.kspo.or.kr
행정안전부 OK주민서비스 www.oklife.go.kr

“고려인삼이 세계 인삼시장 휩쓸 것”

‘2010 인삼축제’ 주관 박천정 한국인삼연합회 회장

10월 23일은 정부와 전국 인삼단체가 정한 ‘인삼의 날’. 이에 발맞춰 농림수산식품부는 서울 청계광장에서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간 ‘2010 대한민국 인삼축제’를 개최한다. 그동안 지역 인삼축제는 있어왔지만 인삼을 주제로 정부가 전국 단위로 여는 축제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행사를 주관하는 사단법인 한국인삼연합회 박천정(60·금산인삼농협 조합장) 회장은 “생산, 유통, 역사, 효능 등 고려인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인삼에 대한 호감도를 높이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축제 의의를 설명한다.

또한 이번 축제가 소비자와 생산자, 판매자가 직접 대면해 함께 즐기는 축제임을 누누이 강조한다.

“농촌진흥청이 참여하는 인삼전시관에선 인삼 효능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결과와 한식 세계화와 관련한 새로운 인삼요리 레시피를 접할 수 있죠. 우수 인삼 전시관, 인삼 사진전, 인삼가공 체험장 등 볼거리, 즐길 것이 다양합니다. 직거래 장터에서는 고려인삼을 시중보다 20퍼센트 저렴하게 판매할 예정입니다.”

조영철 기자

박천정 회장은 ‘2010 대한민국 인삼축제’를 계기로 고려인삼의 세계화에 적극 나서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박 회장은 이번 축제를 한국의 대표 브랜드 중 하나인 고려인삼의 세계화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사실 고려인삼은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다른 나라 인삼에 비해 그 효능이 우수한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약리 효능도 임상실험을 통해 속속 검증되고 있어 국제적인 상품 경쟁력을 확보한 상태다.

박 회장은 “현대과학에 의한 인삼 효능 연구에 앞으로 큰 비중을 둘 방침이다. 이것이 곧 고려인삼 세계화의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려인삼, 과학적 임상실험 통해 상품 경쟁력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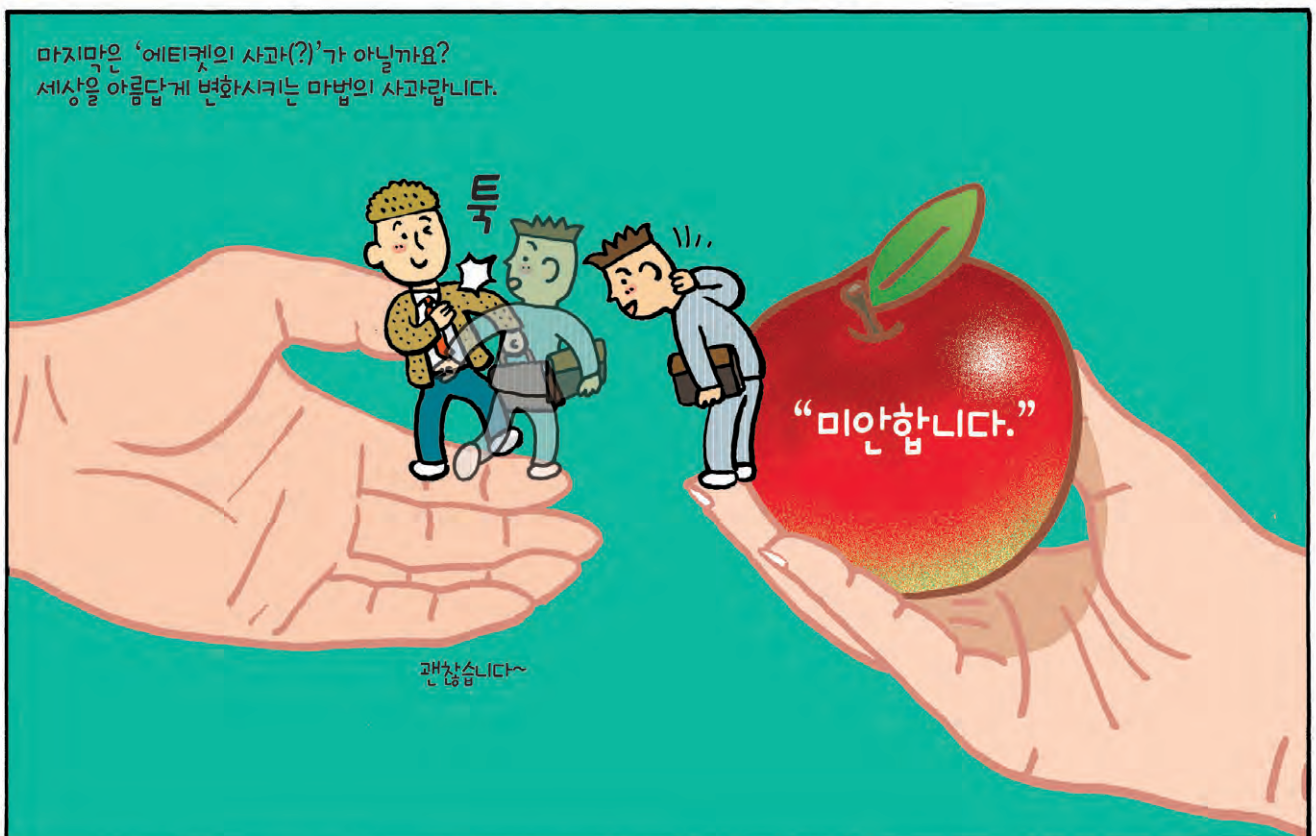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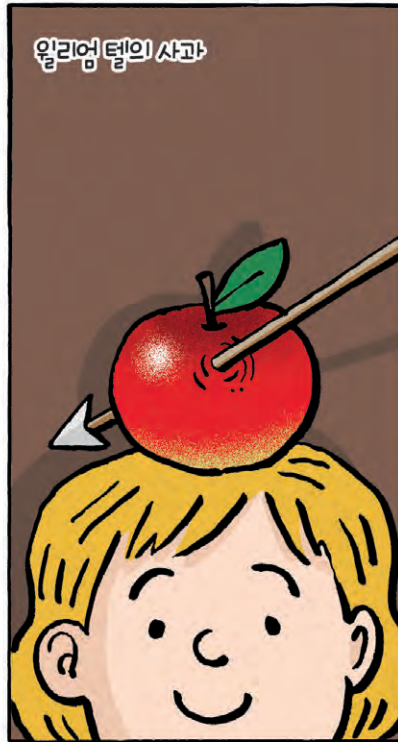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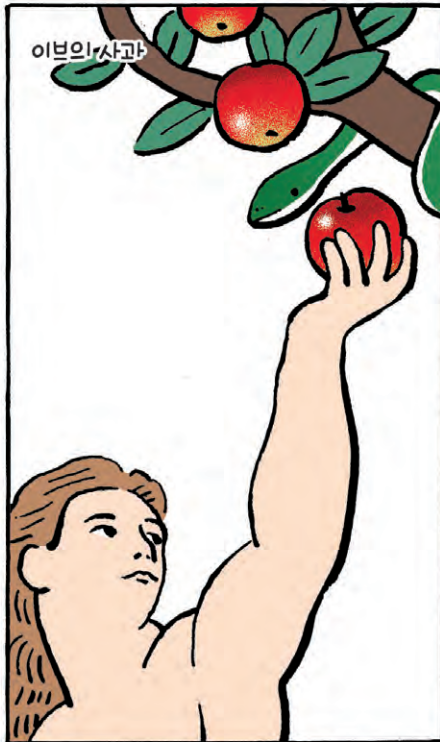
현재 국내에서는 2만5천여 농가가 인삼을 재배하며 재배면적은 2만 헥타르에 달한다. 하지만 인삼 생산량은 최대 경쟁국 중 하나인 중국의 60퍼센트 수준(2만7천 톤)밖에 되지 않는다. 박 회장은 “수삼과 홍삼을 제조 가공해 건강식품으로 만들면 연 2조원 이상을 벌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한다. 그 수요가 매년 15~20퍼센트씩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고기능 건강식품을 개발해 홍보하고, 지리적 표시제를 도입해 원산지 관리만 확실히 하면 세계 인삼시장은 고려인삼이 휩쓸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또한 세계 인삼의 집산지인 홍콩 국제 인삼시장의 교역기능을 분산시키기 위해 한국에 세계 인삼교역 허브센터를 설립한다는 야심찬 계획도 가지고 있다.

박 회장은 “인삼산업을 자원순환형 산업으로 개편해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의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며 “저투입 인삼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유기질 퇴비, 농약 등의 사용량을 점차 줄이면서 인삼 재배 시 발생하는 탄산가스 배출을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G 글 · 최영철(동아일보 주간동아팀 기자)

세계를 변화시킨 4대 사과

구성 | 권우영
그림 | 안종만

먼저 사과하세요. 세상이 아름다워집니다.

일러스트 · 이우정

당신은 오늘과 내일 누구를 만나십니까

〈역사를 바꾼 운명적 만남 · 한국편〉

우리의 삶은 '만남'의 연속이다. 대상과 내용에 차이는 있겠지만 사람은 항상 누군가와 만나면서 삶을 살아간다. 역사 속으로 사라진 과거의 인물들 또한 마찬가지다. 그들도 수많은 만남과 헤어짐을 겪으며 살아왔다. 헤어짐과 동시에 잊혀져간 사소한 만남들도 있었을 것이고, 역사적인 큰 사건을 불러일으킨 만남도 있었을 것이다.

〈역사를 바꾼 운명적 만남 · 한국편〉은 저자 함규진 씨가 역사 속 인물들의 다양한 만남을 소재로 우리 역사를 훑어보고자 쓴 책이다.

그는 역사 속 인물들의 만남을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눠 소개하면서 만남이 역사를 뒤흔든 사건들을 설명해준다. 저자는 한국정치사상을 전공한 정치학 박사로 성균관대 국가경영전략연구소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먼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만남인 '물과 고기의 만남(水魚之會)'의 이야기가 등장한다. 신라시대 문(文)과 무(武)를 대표하며 삼국통일을 이룬 김춘추와 김유신의 만남, 조선 건국의 위업을 이룬 정도전과 이성계의 만남이 그것이다.

다음은 차라리 만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한 '불과 얼음의 만남(火氷之會)'이다. '평양회담'의 실패로 관계가 나빠진 연개소문과 김춘추, TV 드라마 단골 소재인 인현왕후와 장희빈의 만남을 소개하고 있다.

또 불과 나무가 만나 활활 타오르다가 다 탄 후에는 검은 재만 남듯 결국 불행한 결말을 맞는 '불과 나무의 만남(火木之會)'도 있다. 서양화가 나혜석과 천도교 지도자 최린은 한때 열정적인 사랑을 나누었지만 최후에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는다. 다른 시대에 태어났더라면 행복한 결말을 맺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 아쉬운 만남이다.

서로 다른 배경, 관습, 논리 등의 이유로 좀처럼 만나기 힘든 이들이 서로 만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만남, 즉 '산과 바다의 만남(山海之會)'의 예로는 거란의 병영 뜰에서 서로 이익을 얻어낸 서희와 소손녕의 만남, 청나라에 점령된 북경에서의 소현세자와 서양 선교사 아담 샬의 만남 등이 있다.

저자가 마지막으로 소개한 만남은 '구름과 구름의 만남(雲雲之會)'. 한때는 단짝이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각자의 길을 떠나 많은 기회와 희망이 아쉽게도 사라진 만남이다. 대표적인 예로 공민왕과 신돈을 꼽았다. 신돈은 고려조 사상 최대의 권한을 왕에게서 받고 사상 최대의 개혁에 착수했으나 6년 만에 권력을 잃게 된다. 게다가 역적의 오명을 쓰고 처형을 당한다.

저자는 만남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렸다. "아무리 당장 성과가 없어 보이는 만남이라도, 아무리 만날 이유가 없어 보이는 만남이라도, 만남은 반드시 무엇인가를 변화시킨다. 그래서 우리는 만나야 한다"고.

이처럼 자신 앞에 다가온 만남의 기회를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인 자세로 만남을 맞이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를 들려줄 뿐 아니라 우리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만남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하는 책이다. G

글 · 이아진(국립중앙도서관 사서)

함규진 지음 / 미래M&B 펴냄 · 1만4천원

좋은 짝 '결혼'

글과 그림 · 최영순

결혼은 좋은 짝을 찾는 것이 아니라 좋은 짝이 되는 것이다.
– 텐드우드

전 세계 고려불화, 700년 만에 한자리에

기획특별전 〈고려불화대전-7백 년 만의 해후〉

〈수월관음도〉

아미타불의 머리에서 뻗어 나온 빛이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은 왕생자를 감싸며 극락왕생의 길로 인도하는 '아미타삼존도', 선재동자가 법을 구하기 위해 관음보살을 방문해 가르침을 받는다는 내용을 그린 '수월관음도'…. 국립중앙박물관은 10월 12일부터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종교예술품으로 꼽히는 고려불화들을 모아 기획특별전 〈고려불화대전-7백 년 만의 해후〉를 열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서울 G20 정상회의 개최와 박물관의 용산 이전 개관 5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이번 특별전에는 총 1백8점의 유물이 전시되고 있다. 고려불화 61점과 함께 비교 감상을 위한 중국 및 일본 불화 20점, 고려불화의 전통을 계승한 조선 전기 불화 5점, 고려시대 불상과 공예품 22점 등이다.

이번 전시는 무엇보다 국내에 소장 중인 고려불화 외에도 일본, 미국, 유럽 등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고려불화를 한자리에 모았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일본 센소지(淺草寺)가 소장한 '수월관음도', 오타카지(大高寺)가 소장한 '관경16관변상도' 등 전시 작품 상당수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공개되는 것들이다. 특히 '물방울 관음'이라는 별칭을 가진 센소지 소장품인 수월관음도는 일본에서도 공개된 적이 없다.

국립중앙박물관 미술부 배영일 학예연구사는 " '7백 년 만의 해후'라는 부제가 함축하고 있듯이 이번 전시는 고려불화들의 특별한 고향 나들이인 동시에 평생 다시 접하기 어려운 고려불화들과의 반갑고 애틋한 만남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G

글 · 김지영 기자

일시 11월 21일까지 화·목·금요일 오전 9시~오후 6시 수·토요일 오후 9시까지, 일요일 오후 7시까지(월요일 휴관) **장소**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전시실 **관람료** 만 7~18세 1천원, 19~25세 2천원, 26~64세 3천원, 65세 이상과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는 무료 **문의** 02-2077-9000 www.museum.go.kr

● **한국창작무용 〈업경대〉**

불교에서 지옥에 있는 염라대왕이 중생의 죄를 비춰보는 거울이라고 일컫는 업경대(業鏡臺)를 모티프로 해 한국 춤의 움직임을 동양적인 토속적 리듬과 몸짓으로 풀어낸 작품.

일시 10월 22일 오후 8시, 23일 오후 7시, 24일 오후 3시 **장소**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관람료 R석 5만원, S석 3만원, 학생 1만원(초등학생 이상 관람가),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동반 1인까지 50퍼센트 할인 **문의** 02-589-1002 www.ntok.go.kr

송영수 작 〈곡예〉 송영수 작 〈방패〉

●● **기획 전시 〈한국 추상철조의 선구자, 송영수〉**

1960년대에 활발히 전개됐던 한국 추상철조의 선구자 송영수(1930~1970)의 작고 40주기를 기념하는 회고전.

일시 10월 31일까지 평일 오전 10시~오후 6시, 토·일요일 오전 10시~오후 9시, 11월 1일~12월 27일 평일 오전 10시~오후 5시, 토·일요일 오전 10시~오후 8시 **장소** 국립현대미술관 제5전시실

관람료 성인 3천원, 학생 1천5백원,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무료 **문의** 02-2188-6000 www.moca.go.kr

2010~2012 한국방문의 해

"당신의 미소로 한국을 선물하세요"

SMILE KOREA

2010~2012 한국방문의 해
홍보대사 김연아